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한수’가 ‘한 술’ 더 뜨다
‘한수’ SECRET KEY

2021학년도 한수 파이널 10회 모의고사
주요 문항 분석지

#Chapter 1. 오답률 Best 5, “선택지 판단” 집중 분석

[참고] 이 문항들은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자, 동시에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 의미가 있는 문항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은 낯선 문제를 보며 문제 풀이의 감을 유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의고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간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이라 함은 학생 개별마다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틀린 것과 대응하기보다는 이 '모의고사에서 이런 점을 얻어가야 하는구나.' 정도의 생각으로 이 분석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답률 예측		해당 문항	
오답률 5위	26%	25번	(문학 : 고전소설) - <보기>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부 일치
오답률 4위	30%	31번	(독서 : 인문) - 지문 관점과 <보기>의 관점 비교 분석
오답률 3위	38%	39번	(독서 : 과학) - 세부 일치
오답률 2위	42%	18번	(독서 : 사회) - 지문 내용과 <보기>의 개념 연결
오답률 1위	50%	41번	(독서 : 과학)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문학] 고전소설 : 이항복, '유연전' / 현대소설 : 김유정, '만무방'

[문법] 13번, 14번, 15번

[독서] 과학 지문 : 천체의 운동에 관한 다양한 이론 (해설 + 분석 자료)

#Chapter 2. '영역 별 주요 지문' 집중 분석 참고

[오답률 5위(26%) 예측] : 문학-고전소설 25번 문항

[<보기>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부 일치]

2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조선 시대의 추국은 왕명으로 역모와 같은 정치적 중대 사건이나 존속 살인 등과 같이 인륜을 해치는 강상죄 등의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추국을 받는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았으며, 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다. 죄인을 조사하는 추관은 죄인의 죄를 따져 묻는 심문을 통해 죄인의 자백을 받았다. 한편 추관은 증거 없이도 죄와 연관된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죄인의 죄를 확신하거나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기도 하였다. 「유연전」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친형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쓴 인물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과정을 다룬 송사 소설로, 이 작품을 통해 조선 시대의 추국의 실상과 그 허실을 엿볼 수 있다.

[Killer-Point]

- ① 간관이 '유연을 잡아 와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한 것은, 유연이 '형을 죽이고 인륜을 어지럽힌 죄' 즉 강상죄를 지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군.
- ② 유연이 유유를 '살해하고 그 흔적조차 없'었다고 추관이 확신한 이유는, '이지, 심용과 김백천' 등의 진술이 서로 같으므로 믿을 만하다고 여겼기 때문이겠군.
- ③ 추관이 유연의 '곤장을 치'고자 한 것은, 유연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함이겠군.
- ④ '국문을 끝내고 형을 확정하려는데 유연이 부르짖'은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함이겠군.
- ⑤ 유연이 '채응규와 형의 종적을 찾은 후에 죄를 명백히 가'려 달라고 말한 것은, 유유의 행세를 한 채응규를 죽였음을 증명하여 친형을 죽였다는 강상죄의 누명을 벗기 위함이겠군.

[정답 : ⑤]

정답을 맞힌 학생들은 '이 문제가 왜 오답률이 높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고전소설 선지 판단의 기본은 지문을 기반으로 한 사실 일치 판단인데, 기억으로 판단을 하거나, <보기>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2번 선지나 3번 선지가 정답 선지로 보일 수 있다.

<보기>에서 '추관은 증거 없이도 죄와 연관된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죄인의 죄를 확신하거나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기도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추관이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추국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측의 입장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과 한쪽을 도와주는 것은 다르다.

또한 추관이 유연의 곤장을 치고자 한 것은 유연의 죄에 대한 최종적인 처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 유연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이다. 곤장을 맞은 유연이 마지못해 죄를 자백한 뒤에 '형을 확정'하려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제 정답 선지를 보자. 유연은 채응규를 죽이지 않았다. 채응규는 도망간 이후로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유연이 최후 변론에서 '채응규와 형의 종적을 찾은 후에 죄를 명백히 가린다면 원통함이 없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연이 추국을 받으러 가기 전에 채응규가 잡혔다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률 4위(30%) 예측] : 독서-인문 31번 문항

[지문 관점과 <보기>의 관점 비교 분석]

31. (나)에 나타난 이론가들과 <보기>의 '리오타르'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리오타르는 공간적인 '대상'이 아니라 시간적인 '순간'의 재현 불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 현대 회화의 중요한 주제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가 어떤 목적을 향해 전개되어 왔다는 식의 이성 중심주의적 거대 서사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으며, 이런 이유로 오늘날 '현재 순간'의 의미는 불가해(不可解)한 수수께끼가 되었다. '현재 순간'의 다음에 어떤 순간이 도래할지 예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리오타르는 강렬한 원색만이 거대한 화폭을 가득 채우고 있는 뉴먼의 작품이 바로 이러한 상태를 시각적으로 현시한다고 말한다. 즉 뉴먼의 거대한 색면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현시한다는 것이다.

[Killer-Point]

- ① 리오타르는 들뢰즈와 달리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이 유사함을 현대 회화의 미덕으로 간주할 것이다.
- ② 리오타르는 들뢰즈와 달리 어떤 대상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현대 회화의 중요한 주제라고 볼 것이다.
- ③ 리오타르와 푸코는 모두 작품 내의 이미지가 실물을 완벽하게 재현한 것을 현대 회화의 미덕으로 간주할 것이다.
- ④ 리오타르와 들뢰즈는 모두 이성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사건을 표현하는 것이 현대 회화의 중요한 주제라고 볼 것이다.
- ⑤ 리오타르는 푸코와 달리 객관 세계와 무관한 이미지들의 유희를 보여 주는 것이 현대 회화의 중요한 주제라고 볼 것이다.

[정답 : ④]

지문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보기>에까지 새로운 견해가 제시가 되니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수는 있다. 하지만 각 선지의 근거가 지문과 <보기>에 전부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근거만 찾아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리오타르는 '현재 시간'의 의미 자체를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라는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현대 회화의 중요한 주제라고 보았다. 들뢰즈 역시 회화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형상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유사 평가원 기출] - 2018학년도 6월 모평

서구에서 '자연'은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졌는데, 이 개념에는 자연이라는 말로 지칭되는 대상 자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상태나 특성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자연이라는 개념에 부여되는 의미는 철학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했는데, 근대에 홉스와 루소는 자연 개념을 중심으로 자신의 철학을 구축하였다.

홉스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문명화된 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그가 자연을 통제 불능의 무자비한 경쟁 상태로 인식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계속되는 전쟁과 내란이라는 현실 속에서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 삶이 보여주는 잔혹함과 폭력성을 깨닫게 되었다. 즉,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가혹한 싸움을 겪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이기주의자가 되어 결국

폭력이 난무하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위해, 개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행사하는 자의적 권리를 포기하고 절대 권력을 지닌 군주가 지배하는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루소는 인간이 문명을 뒤로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 순수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그가 자연을 생명이 충만한 아름다운 전원으로 여긴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자연관은 당시 문명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이다. 루소는 인간 욕망의 결과물인 문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문명에 의해 형성된 도시의 퇴폐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혐오하였다. 이 때문에 문명을 자연보다 열등한 것으로 폄하했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는 감성으로 인해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 왔던 인간이 문명의 출현으로 퇴폐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감성을 따르는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여겼다.

니체는, 홉스와 루소가 그들이 지향하는 인간 삶의 방향성을 규정하기 위해 인간의 도덕적 가치 판단만으로 자연의 개념을 규정했음을 비판했다. 그는 이런 도덕적 가치 판단에 선행하는, 자연 그 자체를 규정하고자 한다. 니체가 보기에 자연 속의 모든 것들은 자신을 지키고 힘을 키우기 위해 다른 것들과 끊임없이 경쟁을 한다. 이는 홉스의 관점과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홉스가 자연이 경쟁으로 인해 빈곤할 수밖에 없다고 본 반면, 니체는 자연이 활력이 넘치며 풍요롭다고 보았다. 니체는 도덕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인간을 다른 생명체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본다. 그 결과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 지배적인 것이 되었고, 이는 인간이 자신의 해석과 가치 판단을 중심으로 자연을 재단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을 자신과 분리된 존재로 대상화하면서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이 지닌 본능을 따르는 활력이 억압당하고 축소되었다고 니체는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루소의 주장과 유사해 보이지만, 니체가 보기에 루소의 자연은 문명의 삶에 지친 인간이 선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미화된 자연일 뿐이다. 니체에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문명을 떠나 자연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근본적으로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자연의 넘치는 활력을 되찾아 삶을 고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삶의 고양을 위해, 니체는 이성만을 중시했던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인간의 육체에 주목하였다. 인간 중심적 사유에서는 육체가 이성적 활동을 방해한다고 본 것과 달리 니체는 자연의 활력이 분명하게 발현되는 육체를 중요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니체의 관점이 이성적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니체는 이성과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관점을 거부하고 이성과 육체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몸'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니체는 '몸'으로서의 인간에게 육체의 활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성적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육체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동시에 '몸'을 '큰 이성'이라고 규정하고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강조하는 이성을 '작은 이성'이라고 규정하면서, '몸'이 단지 육체적 활동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이성적 활동까지 통합된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니체는 이러한 '몸' 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적 활동을 배제하고 이성적 활동만을 중시하는 편향성을 극복하여,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 육체의 활동이 지닌 활력을 다시 찾아 더 고양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20. 밑글과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데카르트와 메를르 폰티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특성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취했다. 데카르트는 '몸'과 '마음'이 독립적 실체라고 규정하고 이 두 가지를 인간의 본질로 규정했다. 그리고 사유의 속성을 가진 '마음'이, 공간을 차지하는 속성을 가진 '몸'보다 우위에 있다는 관점을 취했다. 반면 메를르 폰티는 몸에 대한 마음의 우위를 거부하고, 몸과 마음은 분리 불가능하므로 감각의 최초 발생 원인이 되는 '몸'을 근본적인 것으로 여겼다.

- ① 니체와 데카르트는 모두 이분법적 관점으로 독립적 실체인 '몸' 개념을 설명하고 있군.
- ② 니체와 메를르 폰티는 모두 '몸'을 인간의 이성적 활동과 분리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군.
- ③ 데카르트는 니체와 달리, 인간 존재가 자연의 일부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특성을 인정하고 있군.
- ④ 메를르 폰티는 니체와 달리, '작은 이성'이 감각의 최초 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군.
- ⑤ 니체는 메를르 폰티와 달리, '큰 이성'이라는 개념이 사유의 속성을 가진 '마음'을 우위에 두는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군.

[정답 : ②]

[오답률 3위(약 38%) 예측] : 독서-과학 39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세부 일치]	
[Killer-Point]	<p>39. 밑글에 나타난 '브라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맨눈으로 천체 현상을 관측하여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②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전통 천문학의 입장을 수용했다. ③ 혜성의 등속 원운동을 관측하여 전통 천문학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렸다. ④ 케플러가 화성의 공전 궤도가 타원임을 밝히는 데 활용된 풍부한 관측 자료를 남겼다. ⑤ 행성들의 운동이 천구의 회전에 의해 발생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 ③]</p>
	<p>브라헤의 혜성 관측이 전통 천문학의 이분법적 우주론 구도를 무너뜨리는 데 기여한 것은 맞다. 하지만 브라헤가 관측한 것은 '혜성의 등속 원운동'이 아니다.</p> <p>먼저 지문에 따르면 '등속 원운동'을 가정하기 위해서는 '천구'의 개념이 필요하다. 그런데 브라헤는 '천구' 개념을 폐기했다고 하였으므로, 브라헤가 혜성들의 등속 원운동을 관측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p> <p>또한 천구들을 가로지르며 다니는 혜성의 존재는 천상계의 천체들이 등속 원운동을 한다는 기본 전제에 들어맞지 않았다는 내용도 지문에 제시되어 있다.</p> <p>전자로 생각해서 판단했어도 잘 한 것이고, 후자의 근거를 찾아서 판단했어도 잘 한 것이다. 다만 언제나 머리를 써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근거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고 쉬운 판단이므로,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찾아서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p>

[유사한 평가원 기출] - 2019학년도 수능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 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운동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그것이 일으킬 형이상학적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 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들었다.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되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 하는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한갓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16세기 후반에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케플러는 우주의 수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하여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자였기에 브라헤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수립할 수 있었다. 우주의 단순성을 새롭게 보여 주는 이 법칙들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더 이상 온존할 수 없게 만들었다.

17세기 후반에 뉴턴은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하였다. 그는 만유인력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들을 성공적으로 연역했다. 이때 가정된 만유인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뉴턴은 이 원리를 적용하여 달의 공전 궤도와 사과의 낙하 운동 등에 관한 실측값을 연역함으로써 만유인력의 실재를 입증하였다.

*질점 : 크기가 없고 질량이 모여 있다고 보는 이론상의 물체.

*구 대칭 : 어떤 물체가 중심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서 같은 특성을 갖는 상태.

29. 밑글에 나타난 서양의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항성 천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대립시킨 형이상학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 ② 많은 수의 원을 써서 행성의 가시적 운동을 설명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은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을 갖는 것이었다.
- ③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이전의 지구 중심설보다 단순할 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양립이 가능한 것이었다.
- ④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을 거느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브라헤의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다.
- 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관측치로부터 수립한 케플러의 우주론은 신플라톤주의에서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은 것이었다.

[정답 : ④]

[오답률 2위(약 42%) 예측] : 독서-사회 18번 문항

[지문 내용과 <보기>의 개념 연결]

18.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

(가) 한계 편익이란 재화를 1개 소비할 때 누리는 편익으로, 소비하는 재화의 양이 늘어날 수록 줄어든다. 그런데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은 어떤 가격에서 얼마만큼의 재화를 구입하려는지 보여 주는 것으로, 그 소비자가 해당 수량만큼 소비할 때에는 그 수량에 대응하는 가격만큼의 한계 편익을 누린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령 어떤 재화의 가격이 1,000원일 때 그 재화를 2개 소비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라면, 그 재화를 2개 소비할 때의 한계 편익은 1,000원인 것이다. 따라서 수요 곡선과 한계 편익 곡선은 일치한다.

(나)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할 때, 개별 소비자들에게 각자의 한계 편익과 공공재의 공급량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징수하면 공공재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문제는 공공재에 대한 개별 소비자들의 한계 편익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개별 소비자들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계 편익을 축소하여 보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개별 소비자들의 한계 편익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공공재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Killer-Point]

- ① (가)를 보니, 개별 소비자들의 한계 편익 곡선은 우하향하겠군.
- ② (가)를 보니, 민간재의 경우 한계 편익 곡선은 개별 소비자들의 한계 편익 곡선을 수평으로 더하여 만들어지겠군.
- ③ (나)를 보니, 개별 소비자들의 한계 편익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도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된 것이겠군.
- ④ (나)를 보니, 공공재의 경우 정확하게 알려진 한계 편익 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른 사람일 수록 세금을 더 적게 납부해야 공공재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겠군.
- ⑤ (나)를 보니, 어떤 공공재의 한계 편익이 1,000원인 사람이 해당 공공재를 10개 소비하게 되는 것이라면 10,000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효율적 배분에 도움이 되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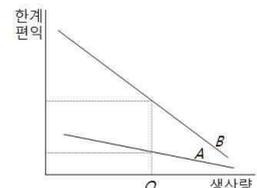
[정답 : ④]

<보기> (나)에 따르면 개별 소비자들에게 각자의 한계 편익과 공공재의 공급량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징수하면 공공재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한계 편익이 적은 사람일수록 더 적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공공재의 효율적 배분에 유리하다.

그렇다면 '한계 편익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한계 편익이 작다'가 성립하는 것인지 판단해봐야 한다. 한계 편익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편익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커도 한계 편익이 작을 수 있고, 기울기가 작아도 한계 편익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A, B 두 사람의 한계 편익을 나타낸 <그림>에서 B의 한계 편익 곡선의 기울기는 A의 한계 편익 곡선의 기울기보다 가파르다. 하지만 특정 공급량(Q)일 때 한계 편익은 B가 더 크다. 따라서 '한계 편익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한계 편익이 작다'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림>

[유사한 사례] - 2020년 4월 교육청

경제학에서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를 실업이라고 정의하고, 실업이 증가하면 사회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수량이 적어지는 등의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경제학에서는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실업을 크게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등으로 분류하고 그 해결책을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선 마찰적 실업이란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노동자가 개인의 선택으로 직업이나 직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이다. 이는 전체 생산량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크게 요구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구조적 실업이란 노동자가 공급하는 기술 수준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 간의 불합치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은 노동자의 재교육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경기적 실업이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고용량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실업이다. 다시 말해 경기적 실업은 노동 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할 때, 경기가 침체되어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게 되고 이로 인해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발생한다. 경기적 실업은 다른 종류의 실업에 비해 생산량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경제학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먼저 고전학파에서는 시장에서 임금이나 물가 등의 가격 변수가 완전히 탄력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기적 실업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일시적 현상으로 본다. 이들에 의하면 노동자들이 받는 화폐의 액수를 의미하는 명목임금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침체로 인해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눈 값, 즉 임금의 실제 가치를 의미하는 ㉡실질임금은 상승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가가 10% 정도 하락하게 되면 명목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10% 정도 늘어날 수 있고, 이는 물가가 하락하기 전보다 실질임금이 10% 정도 상승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경기적 실업으로 인해 실업 상태에 있던 노동자들은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고, 이로 인해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동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고 이러한 경쟁으로 인해 명목임금은 탄력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명목임금의 하락은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실질임금은 경기가 침체되기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돌아간다. 결국 기업에서는 명목임금이 하락한 만큼 노동의 수요량을 늘릴 수 있게 되므로 노동의 초과공급은 사라지고 실업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따라서 고전학파에서는 인위적 개입을 통해 경기적 실업을 감소시키려는 정부의 역할에 반대한다.

22. ㉠과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가가 상승하고 ㉠이 하락한다면, ㉡은 상승하겠군.
- ② 물가의 변화가 없고 ㉠이 하락한다면, ㉡도 하락하겠군.
- ③ 물가가 하락하고 ㉠이 변하지 않는다면, ㉡은 상승하겠군.
- ④ ㉠이 상승한다면 노동자들이 받는 화폐의 액수는 증가하겠군.
- ⑤ ㉡이 상승한다면 ㉠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증가하겠군.

[정답 : ①]

[오답률 1위(약 50%) 예측] : 독서-과학 41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41. 밑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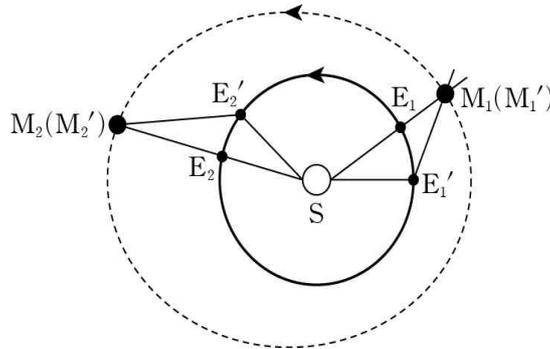
< 보기 >

케플러는 지구의 공전 궤도를 먼저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화성의 공전 궤도를 확정했다. 즉 특정 날짜에 지구가 공전 궤도상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래의 방법을 통해 화성의 공전 궤도를 확정했다.

- (1) 브라헤의 관측 자료를 통해 태양(S), 지구(E_1), 화성(M_1)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날짜를 확인하고, 그림에서 세 천체를 잇는 직선을 긋는다. 단, 이때는 화성(M_1)이 직선 SE_1 의 연장선상에 존재한다는 것만 추정한다.
- (2) (1)에서 확인한 날짜로부터 687일 후인 날짜에 지구가 위치한 지점 E_1' 을 찾아 그림에 표시한다.
- (3) 브라헤의 관측 자료에서 지구가 E_1' 에 위치한 날짜에 지구와 태양을 잇는 직선과 지구와 화성을 잇는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찾고, E_1' 에서 화성(M_1')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향으로 해당 각도에 맞게 직선을 그린다.
- (4) (1)의 직선과 (3)의 직선이 만나는 지점을 화성의 공전 궤도상의 한 지점으로 특정한다. 즉, M_1 과 M_1' 의 위치를 이 교차점으로 확정한다.
- (5) 태양, 지구, 화성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또 다른 날짜를 찾아, $M_2(M_2')$ 와 같은 화성의 공전 궤도상의 또 다른 지점들을 구하여 연결한다.

(단, 그림의 공전 궤도상에 표시된 화살표는 행성의 이동 방향을 가리킨다.)

[Killer-Point]



- ① 케플러는 화성이 687일마다 우주 공간의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겠군.
- ② 케플러는 (1)의 단계에서는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알았더라도 지구와 화성의 거리는 몰랐겠군.
- ③ 케플러는 지구가 E_2 에 있던 날짜로부터 687일 후에는 E_2' 지점이 지구의 위치가 되었다고 생각했겠군.
- ④ 지구가 E_2' 에 있을 때 지구와 태양을 잇는 직선과 지구와 화성을 잇는 직선이 이루는 각도는 브라헤의 관측 자료에 기록되어 있었겠군.
- ⑤ 태양의 위치가 완성된 타원 궤도의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면, 화성은 $M_1(M_1')$ 지점에서보다 $M_2(M_2')$ 지점에서 더 빠르게 움직이겠군.

[정답 : ⑤]

무섭게 생긴 <보기>지만, (1)~(5)의 과정을 <그림>과 함께 따라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그림>의 과정이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도, M1과 M2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만 있었다면 정답 선지는 고를 수 있었다.

M1과 M2의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거리'다. <그림>에서도 태양의 위치는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이게 더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태양과 M1 사이의 거리는 더 좁혀질 것이고, 태양과 M2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질 것이다.

이제 '거리'와 '공전 속도'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를 지문에서 찾아야 하는데, 지문의 4문단에 따르면 화성은 근일점에서 가장 빠르고 원일점에서 가장 느리게 움직인다. 즉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성의 움직임은 거리가 먼 M2가 아니라 M1 지점에서 더 빠를 것임을 알 수 있다.

[유사한 사례] - 2019년 3월 교육청

『칠정산 내편』의 효용성을 살피기 위해 세종은 정묘년(147년) 8월에 일어날 교식을 미리 추보하여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을 편찬하게 했다. 그런데 이 추보에 오차가 발생하자 추보의 방법과 내용을 꾸준히 정비했다. 이 성과를 담은 책이 바로 세조 4년에 편찬된 『교식 추보법 가령』이다. 이 책은 정묘년(147년) 8월의 교식을 새로운 계산식으로 다시 추보한 것이다. 두 가령의 교식 추보 원리는 동일하지만 계산식을 약간 달리했기 때문에 교식 추보 시각은 서로 달랐다. 두 가령의 교식 추보 시각은 현대 천문학의 계산과 조금의 오차는 있지만 당시 유럽의 천문학과 비교하더라도 그 방법론이 매우 정교하여 조선 역법의 뛰어난 수준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근일점에서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러므로 북반구에서 관측한 태양은 동지 즈음에 가장 빠르게 운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하지 즈음에 가장 느리게 운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칠정산 내편』은 근일점과 동지가 일치한다고 보았다. 즉 동지와 하지에서 태양의 실제 위치가 평균 속도로 운행한 태양의 위치와 일치한다고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동지부터 하지 사이를 영, 하지부터 동지 사이를 축이라 했다. '영축차'는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이다. 그러므로 영에서의 값인 '영차'는 양의 값이고, 축에서의 값인 '축차'는 음의 값이다. 달 역시 지구와 가까울수록 빠르게 움직인다. 그래서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이 위치할 때인 근지점에서 '지질차'의 값을 0으로 간주했다. '지질차'란 달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인데, 근지점부터 달이 지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원지점까지는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선다. 그리고 원지점부터 근지점까지는 그 반대이다.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면 '질차', 뒤처지면 '지차'라 했다.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여 태양을 가릴 때를 삭(朔),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놓여 달을 가릴 때를 망(望)이라 한다. 정삭과 정망은 지구와 달이 태양과 정확히 일직선 위에 놓이게 될 때의 시각이다.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과 『교식 추보법 가령』 모두 정삭, 정망은 태양과 달의 평균 위치로 계산된 경삭과 경망에 실제 태양과 달의 빠르고 느린 정도를 가하거나 감하여 구했다. 이를 가감차 방식이라 한다. 가감차 값은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을 속도향 값으로 나누어 구했다. 즉 가감차 값이 양일 때에는 그 값을 경삭, 경망에 더하는 가차로 삼았고, 음일 때에는 그 값을 경삭, 경망에서 빼는 감차로 삼았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령 모두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은 속도향 값으로 달의 이동 속도를 활용했지만, 『교식 추보법 가령』은 달의 이동 속도에서 태양의 이동 속도를 뺀 값을 활용했다. 이는 태양이 달에 비해 느린 속도로 달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정묘년(147년) 8월은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가는 시점으로, 경삭이 일어날 때 달은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과 『교식 추보법 가령』의 추보법에 의하면 경삭이 일어날 때 태양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의 차는 약 2.39였고, 달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의 차는 약 4.99였다.

- ① 정묘년 8월 경삭 때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 있었을 것이다.
- ② 정묘년 8월 정삭 추보에서 가감차 값은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이 『교식 추보법 가령』보다 더 컸을 것이다.
- ③ 정묘년 8월 정삭 추보에서 두 가령 모두 경삭에 가감차 값을 더하는 가차로 삼았을 것이다.
- ④ 정묘년 8월 정삭 추보에서 두 가령 모두 가감차 계산에 영차를 사용했을 것이다.
- ⑤ 정묘년 8월 정삭 때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정답 : ③]

<보기>는 정묘년(1447년) 8월 교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가는 시점이므로 축이며 태양의 실제 위치보다 평균 속도로 운행한 태양의 위치가 더 앞선다. 그러므로 축차이며 음의 값이다. 달이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고 했으므로 역시 달의 실제 위치보다 평균 속도로 운행한 달의 위치가 더 앞선다. 그러므로 지차이며 음의 값이다. <보기>에 의하면 정묘년 8월 경삭에서 영축차 값과 지질차 값 모두 음의 값이므로 가감차 값은 양의 값이 된다. 따라서 정삭을 추보할 때 가감차 값을 가차로 삼았을 것이다.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① 문법

[참고] 문법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고 나서 자신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 알아야 하는 개념들을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1.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에 따른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서 벗어난 합성어

(1) 통사적 합성어

종류	예시
① 체언 + 체언	눈발, 밤낮, 눈물
② 관형사 + 체언	새해, 옛날, 첫사랑
③ 용언의 관형사형 + 체언	어린이, 작은집, 뜰소문
④ 용언의 연결형 + 용언	갈아입다, 알아듣다, 들어가다, 파고들다
⑤ 체언 + 용언 : 우리말에서 조사 생략은 일반적이므로, 일반적인 단어 배열에 해당한다.	철들다, 빛나다, 분받다, 힘쓰다

(2) 비통사적 합성어

종류	예시
① 용언의 어간 + 체언	뉘밥, 접칼
② 용언의 어간 + 용언	검붉다, 높푸르다, 굳세다
③ 부사 + 체언	산들바람, 오목거울
④ 한자어 결합 방식	등산, 독서

[Tip] ‘어미(연결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으면 통사, 없으면 비통사. 조사 생략은 일반적!(이 정도는 외우면 좋다.)

2. 품사별 합성어

(1) 합성 체언

- ① 두 어근이 모두 체언인 합성 명사 ㉠ 앞뒤, 눈발, 마소, 돌다리, 똥오줌, 길바닥, 눈물, 춘추, 연세
- ② 관형어와 명사가 연결된 합성 명사 ㉠ 새해, 새마을, 큰형, 어린이, 작은집, 날짐승, 열쇠
- ③ 합성 대명사 ㉠ 이것, 그것, 여러분, 누구누구
- ④ 합성 수사 ㉠ 예닐곱

(2) 합성 동사

- ① 두 어근이 모두 동사인 합성 동사 ㉠ 들고나다, 파고들다, 타고나다, 갈아입다, 들어가다, 알아듣다, 돌아가다
- ② 앞 어근은 형용사, 뒤 어근은 동사인 합성 동사 ㉡ 기뻐하다, 좋아하다
- ③ 명사와 동사가 연결된 합성 동사 ㉢ 힘들다, 본받다, 힘쓰다, 등지다

(3) 합성 형용사

- ① 형용사끼리 합성된 합성 형용사 ㉣ 희디희다, 머나멀다, 짜디짜다, 높푸르다, 검붉다
- ② 동사끼리 합성된 합성 형용사 ㉤ 깎아지르다
- ③ 명사와 형용사가 합성된 합성 형용사 ㉥ 남부끄럽다, 손쉽다, 값싸다, 배부르다
- ④ 부사와 형용사가 결합된 합성 형용사 ㉦ 다시없다
- ⑤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 + 형용사의 구성인 합성 형용사 ㉧ 쓸데없다, 보잘것없다

(4) 합성 관형사, 합성 부사, 합성 감탄사

- ① 합성 관형사 ㉨ 한두, 스무남은
- ② 합성 부사 ㉩ 한바탕, 어느덧, 어느새, 밤낮, 이른바, 오다가다, 곧잘, 잘못, 군데군데, 하나하나, 두고두고, 더듬더듬, 오래오래
- ③ 합성 감탄사 ㉪ 아이참, 얼씨구절씨구, 웬걸

[선택지 해설]**13. ㉥**

정답해설 답은 ㉥야. 먼저 ㉠에는 용언의 활용형 뒤에 명사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명사가 와야 해. ‘큰집’은 분석하면 ‘크-(어간) + -(으)ㄴ(관형사형 전성 어미) + 집(명사)’야. ‘큰’은 ‘크다’의 어간 ‘크’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이 붙은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용언의 활용형에 해당해.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큰’이 명사 ‘집’을 꾸미면서 결합하고 있어. 다음으로 ㉡에는 서로 다른 두 단어의 일부를 결합해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가 와야 해. ‘라볶이’는 ‘라면’과 ‘떡볶이’라는 서로 다른 두 단어에서 ‘라’와 ‘볶이’라는 일부만 빼서 합성한 새로운 단어로서, ‘라면과 떡, 채소, 어묵 따위를 넣고 양념을 하여 볶음 음식’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먼저 ‘고기잡이’는 분석하면 ‘고기(어근/명사) + 잡이(접사)’로, 파생명사에 해당해. 그러므로 ㉠에 해당하지 않아. 다음으로 ‘달남도’ 분석하면 ‘달(어근/명사) + 님(접사)’로 파생명사에 해당해. 즉 서로 다른 두 단어의 일부를 합한 것이 아니야.

②를 살펴보자. 먼저 ‘나이테’는 분석하면 ‘나이(어근/명사) + 테(어근/명사)’로, 명사와 명사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합성 명사야. 그러므로 ㉠에 해당하지 않아. 다음으로 ‘컴맹’은 ‘컴퓨터’와 ‘문맹’이라는 서로 다른 두 단어에서 ‘컴’과 ‘맹’이라는 일부만 빼서 합성한 새로운 단어야. ‘컴퓨터를 다룰 줄을 모름. 또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새로운 단어가 탄생해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 즉 ‘컴맹’은 ㉡에 해당해.

③을 살펴보자. 먼저, ‘매운맛’은 ‘맵-(어간) + -(으)ㄴ(관형사형 전성어미) + 맛(명사)’로 분석 돼. ‘매운’은 ‘맵다’의 어간 ‘맵’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이 붙은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용언의 활용형에 해당해.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매운’이 명사 ‘맛’을 꾸미면서 결합해 명사를 만들고 있어. 그러므로 ‘매운맛’은 ㉠에 해당해. 다음으로 ‘군밤’은 분석하면 ‘굽-(어간) + -(으)ㄴ(관형사형 전성 어미) + 밤(명사)’이야. ‘굽’은 ‘굽다’의 어간 ‘굽’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이 붙은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용언의 활용형에 해당해.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굽’은 명사 ‘밤’을 꾸미면서 결합하고 있어. 그러므로 ‘군밤’은 ㉡이 아니라 ㉠에 해당해.

④를 살펴보자. 먼저 ‘가림막’은 분석하면 ‘가리-(어간) + -(으)ㄴ(명사형 전성 어미) + 막(명사)’야. ‘가림’은 ‘가리다’의 어간 ‘가리’에 명사형 전성 어미 ‘-(으)ㄴ’이 붙은 용언의 명사형으로 용언의 활용형에 해당해.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가림’은 명사 ‘막’과 함께 결합해 명사를 만들고 있어. 그러므로 ‘가림막’은 ㉠에 해당해. 다음으로 ‘슈퍼’는 ‘슈퍼마켓’이라는 전체에서 ‘슈퍼’로 일부만 이야기하는 거야. 즉 하나의 단어의 일부를 이야기 해. 그러므로 ㉡에 해당하지 않아.

[14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안은 문장]

안은 문장 : 안긴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
 안긴 문장 :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으로, ‘절’이라고도 한다.

(1) 명사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문장(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등의 역할)

표지	예
① 명사형 어미 ‘-(으)ㅁ’	나는 승모가 모범생임을 안다. 우리 등반대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음이 확인되었다.
② 명사형 어미 ‘-기’	우리는 승모가 성공하기를 기대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가 너무 어렵다.

(2) 부사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문장

표지	예
① 부사형 어미 ‘-게’	엄마가 아이를 입이 마르게 칭찬했다.
② 부사형 어미 ‘-도록’	태현이는 다리가 붓도록 걸었다.
③ 부사형 어미 ‘-아서/어서’	나는 영지가 잡아서 하루 더 머물렀다.
④ 부사형 어미 ‘-듯이’	나그네가 달이 구름에 가듯이 간다.
⑤ 부사형 어미 ‘-ㄹ수록’	해가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⑥ 부사 파생 접미사 ‘-이’	그 사람이 말도 없이 갔다.

(3) 관형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관형어처럼 쓰이는 문장

표지	예
① 관형사형 어미 ‘-(으)ㄴ’ : 과거	이 배에는 <u>고기를 잡은</u> 사람이 없다.
② 관형사형 어미 ‘-는’ : 현재	이 배에는 <u>고기를 잡는</u> 사람이 없다.
③ 관형사형 어미 ‘-(으)ㄹ’ : 미래	이 배에는 <u>고기를 잡을</u> 사람이 없다.
④ 관형사형 어미 ‘-던’ : 회상	이 배에는 <u>고기를 잡던</u> 사람이 없다.

[참고]

관계 관형절	개념 : 관형절의 문장 성분 중 주절에 있는 동일 요소가 생략되는 관형절
	㉠ <u>학교에</u> 가는 철수를 보았다. → 관형절 ‘(철수가) 학교에 가는’에서 주어 생략 철수가 쓴 글을 읽었다. → 관형절 ‘철수가 (글을) 쓴’에서 목적어 생략 파도의 자취가 새겨져 있는 바위가 있다. → 관형절 ‘파도의 자취가 (바위에) 새겨져 있는’에서 부사어 생략

동격 관형절	개념 : 관형절과 관형절이 수식하는 체언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관형절 / 생략되는 문장 성분이 없음
	예) 나는 철수가 어제 수지를 만난 사실을 알고 있다. → 관형절 ‘철수가 어제 수지를 만난’과 ‘사실’이 동일한 의미

(4) 서술절을 안은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문장.(절 표시가 없음.)

예) 코끼리가 코가 길다. 서울은 인구가 많다.

(5) 인용절을 안은 문장 : 화자의 생각, 느낌, 다른 사람의 말 등을 옮긴 문장

표지	예
① 직접 인용절 : 인용격 조사 ‘라고’, ‘하고’	나는 “ <u>날씨가 너무 더워!</u> ”라고 소리쳤다. 폭풍으로 나무가 “ <u>쿵!</u> ”하고 쓰러졌다.
② 간접 인용절 : 인용격 조사 ‘고’	선생님이 나에게 저 <u>가방에는 무엇이 있냐고</u> 물었다. 철수가 영희에게 <u>숙제를 보여달라고</u> 했다.

2. 이어진 문장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문장

(1)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 대등적 연결어미로 형성

· 나열 (-고, -(으)며)

예) 꽃이 피고 새가 운다. 철수는 서울로 가고 영희는 부산으로 간다. 떡은 쌀가루로 만들며 빵은 밀가루로 만든다.

· 대조 (-지만, -(으)나) 예) 절약은 부자를 만드나 절제는 사람을 만든다.

· 선택 (-든지) 예)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정하자.

(2)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종속적 연결어미로 형성

· 조건 (-(-으)면, -거든, -어야) 예) 봄이 오면 꽃이 핀다.

· 원인 (-(-으)니, -(으)니까, -어서) 예) 비가 와서 길이 질다.

· 의도 (-(-으)러, -(으)려고, -고자) 예) 소풍을 가려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 양보 (-더라도, -(으)ㄹ지라도) 예) 설령 비가 올지라도 우리는 출발할 것이다.

[참고 자료][문장 출제 요소 정리]

	절 표지(전성 어미)	출제 요소
명사절	-음, -기	역할 : 주어, 목적어, 부사어(격 조사로 판단), 보어(보기 힘듦) 관형어(순간적인 착각이나 함정 주의) <보기> → <판단> → <선택지> 순서대로 예시) <보기> : (승모가 거짓말을 했음)이 밝혀졌다. → (판단) 명사절이 주어 역할 → (선택지 출제) ① 주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나는 (너희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 → ②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승모는 (귀국하기)로 결심했다. → 명사절이 부사어 역할 → ③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그는 (비가 오기) 전에 떠났다. → 명사절이 관형어 역할(-기 전) → ④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함정 주의) [보통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는 선택지를 보면 관형절을 떠올리기 마련, 명사절도 있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자. 만약 번거롭다면 ‘-기 전’을 외워두고 명사절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라고 기억해두자.]
관형절	-은, -는, -던, -ㄹ	1)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이 있느냐 2)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느냐 3) 생략 여부 : 안긴 문장의 (주어 / 목적어 / 부사어) 생략 - 안긴 문장의 한 성분이 생략되는 관형절 : 관계 관형절(중요) - 안긴 문장의 한 성분이 생략되지 않는 관형절 : 동격 관형절(잊지 말기) <보기> → <판단> → <선택지> 순서대로 예시) <보기> : (예쁜) 꽃이 피었다. → (판단) ‘-ㄹ’을 보고 관형절 / 수식받는 체언인 꽃을 집어넣는다. / 꽃이 예쁘다였을 것이므로 안긴 문장의 주어가 생략된 것. → <선택지 출제> ①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고. 그는 (좁은) 길을 혼자 걸었다. → ‘-은’을 보고 관형절 / 수식받는 체언인 길을 집어넣는다. / 길이 좁다였을 것이므로 안긴 문장의 주어가 생략된 것. → ②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고. 여기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다. → ‘-는’을 보고 관형절 / 수식받는 체언인 ‘음식’을 집어넣는다. / 우리가 음식을 좋아하다였을 것이므로 안긴 문장의 목적어가 생략된 것. → ③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고. (승모가 밥을 먹은) 식당은 학원 앞에 있다. → ‘-은’을 보고 관형절 / 수식받는 체언인 식당을 집어넣는다. / 승모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였을 것이므로 안긴 문장의 부사어가 생략된 것. → ④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고. 우리는 (그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았다.(동격 관형절 / 생략X)
부사절	-게, -도록, -듯이, -니까 -이(부사 파생 접미사)(없이, 같이, 달리)	1)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느냐 2) -이(부사 파생 접미사) 없이, 같이, 달리처럼 ‘-이’가 결합되어 부사가 된 단어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긴 문장의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p>(사람들이 앉게) 어서 일어나자 → 부사절 승모는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 부사절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 원래 '소리가 없다' 즉 절이다. '소리도 없이'가 '내린다'라는 용언을 꾸민다. 즉 부사절이다. '없이'는 부사이지만 예외적으로 안긴 문장의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p> <p>1)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경우, 앞절이 뒷절 사이로 들어가면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부사절로 보기도 한다. - 비가 와서 차가 막힌다.(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차가 (비가 와서) 막힌다.(‘비가 오다’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 역할)</p> <p>2) 인용절 역시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승모는 (날씨가 참으로 덥다고) 되뇌었다.(인용절 / 부사어의 역할)</p> <p>이처럼 부사절은 범위가 넓다. 따라서 절이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면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라는 판단만 해주면 된다.</p>
서술절	X(문장 형태에 익숙해지기)	<p>1)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느냐 2) 안긴 문장에 부사어가 있느냐 3) 보어가 있는 홑문장과 구분할 수 있느냐</p> <p>이 집은 (베란다가 넓다.) 이 집은(문장 전체 주어) (베란다가(주어) 넓다.(서술어))(문장 전체 서술어) → 서술절 /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p> <p>친구는 (얼굴이 많이 변했다). 친구는(문장 전체 주어) (얼굴이(주어) 많이 변했다.(서술어))(문장 전체 서술어) → 서술절 /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 / 안긴 문장 안에 부사어가 있느냐(많이)</p> <p>승모는 돼지가 아니다.(되다, 아니다 앞 이/가는 보어 / 홑문장) 이번 실패는 어느 한 사람의 탓이 아니다. (되다, 아니다 앞 이/가는 보어 / 홑문장)</p>
인용절	라고(직접 인용), 고(간접 인용)	<p>직접 ⇔ 간접 바꿔보기 승모는 밥을 잘 먹었다고 말했다.(간접 인용 / 부사어의 역할)</p>

[선택지 해설]

14. ㉓

㉑	아빠는 [[잘 아는] 문제도 다시 보라고] 말씀하셨다. 관형절(목적어 생략) 인용절
㉒	누나는 [넓은] 운동장을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관형절(주어 생략) 부사절
㉔	[농구를 아주 좋아하는] 동생은 [키가 부쩍 자랐다]. 관형절(주어 생략) 서술절
㉕	나는 [[돌아오는] 주말에 놀러가기]로 아빠와 약속했다. 관형절(주어 생략) 명사절(부사어 역할)

정답해설 답은 ㉓이야. 안긴문장을 찾을 때는 해당 안긴문장을 나타내는 표지를 찾는 게 가장 빨라. 예를 들어, 문장에 명사형 전성어미 ‘-(으)ㄴ, -기’가 있으면 명사절, 관형사형 전성어미 ‘-(으)ㄴ, -던, -는, -(으)ㄹ’이 있으면 관형절을 의심해보는 거지. 먼저 ㉒의 ‘누나는 넓은 운동장을 밤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에는 두 개의 안긴문장이 있어. 첫째, ‘넓은’이야. 이는 본래 ‘운동장이 넓다.’라는 문장에서 안은문장과 같은 부분인 주어 ‘운동장이’를 생략하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으)ㄴ’을 사용해 ‘넓은’이 되었어. 그리고 안은문장에 속 안겨서 체언 ‘운동장’을 꾸미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즉, ‘넓은’은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로 안긴문장이야. 둘째, ‘발에 땀이 나도록’이야. 이는 본래 ‘발에 땀이 나다.’라는 문장에서 어미가 부사형 전성어미 ‘-도록’으로 바뀐 뒤 안겼어. 그리고 안은문장의 용언이자 서술어인 ‘뛰었다.’를 꾸미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즉 ‘발에 땀이 나도록’은 부사절로 안긴문장이야. 이에 선지에서 ‘㉒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라는 부분은 맞아. 다음으로 ㉓의 ‘나는 돌아오는 주말에 놀러 가기로 아빠와 약속했다.’에는 두 개의 안긴문장이 있어. 첫째, ‘돌아오는’이야. 이는 본래 ‘주말이 돌아오다.’라는 문장에서 안은문장과 같은 부분인 ‘주말’을 생략하고 어미가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으로 바뀐 뒤 안겼어. 그리고 안은문장의 체언 ‘주말’을 꾸미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지. 즉, ‘돌아오는’은 관형절로 안긴문장이야. 둘째, ‘돌아오는 주말에 놀러가기’야. 이는 본래 ‘(내가) 돌아오는 주말에 놀러간다.’라는 문장에서 주어가 생략되고 어미가 명사형 전성어미 ‘-기’로 바뀌면서 안겼어. 그리고 뒤에 부사격조사 ‘-로’를 가지면서 안은문장에서 부사어로 역할을 하게 되었지. 즉, ‘돌아오는 주말에 놀러가기’는 명사절로 안긴문장으로 안은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자, 그럼 선지에서 ‘㉓은 주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는 틀렸어. 주어의 기능을 하는 것은 대부분 명사로, 명사절도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어. 하지만, ㉓에서는 명사절 ‘돌아오는 주말에 놀러가기’ 뒤에 부사격조사 ‘로’가 붙으면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지. 즉, ㉓에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어.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㉑의 ‘아빠는 잘 아는 문제도 다시 보라고 말씀하셨다.’에는 ‘잘 아는 문제도 다시 보라고’라는 인용절로 안긴문장이 있어. 이는 본래 ‘잘 아는 문제도 다시 보라’라는 문장에 간접 인용격 조사 ‘고’가 붙은 거야. 즉, 인용절로 안긴문장이 있는 거지. 그러므로 선지에서 ㉑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안긴문장이 있다는 것은 맞아.

②를 살펴보자. 먼저 ㉑의 ‘아빠는 잘 아는 문제도 다시 보라고 말씀하셨다.’에는 ‘잘 아는’이라는 관형절로 안긴문장이 있어. 이는 본래 ‘(문제를) 잘 알다.’라는 문장에서 안은문장과 같은 부분인 목적어 ‘문제를’를 삭제하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을 사용해 ‘잘 아는’이 되었어. 그리고 안은문장에 안겨서 체언 ‘문제’를 꾸미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즉, ‘잘 아는’은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절로 안긴문장이야. 그러므로 선지에서 ㉑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맞아. 다음으로 ㉓의 ‘나는 돌아오는 주말에 놀러 가기로 아빠와 약속했다.’에는 두 개의 안긴문장이 있어. 첫째, ‘돌아오는’이야. 이는 본래 ‘주말이 돌아오다.’라는 문장에서 안은문장과 같은 부분인 주어 ‘주말이’를 생략하고 어미가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으로 바뀐 뒤 안겼어. 그리고 안은문장의 체언 ‘주말’을 꾸미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지. 즉, ‘돌아오는’은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로 안긴문장이야. 그러므로 선지에서 ㉓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맞아.

④를 살펴보자. 먼저 ㉓의 ‘농구를 아주 좋아하는 동생은 키가 부쩍 자랐다.’에는 두 개의 안긴문장이 있어. 첫째, ‘농구를 아주 좋아하는’이야. 이는 본래 ‘(동생이) 농구를 아주 좋아하다’라는 문장에서 안은문장과 같은 부분인 주어 ‘동생이’가 생략되고 어미가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으로 바뀌어 안은문장에 안겼어. 그리고 안은문장의 명사 ‘동생’을 꾸미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지. 즉, ‘농구를 아주 좋아하는’은 주어가 생략된 후 관형절로 안긴문장이야. 둘째, ‘키가 부쩍 자랐다.’야. ‘동생은 키가 부쩍 자랐다.’를 보자. 이 문장에는 ‘동생은’과 ‘키가’라는 두 개의 주어가 있어. 하지만 서술어는 ‘자랐다’ 하나지. 이때 서술어 ‘자랐다’는 ‘키가’라는 주어의 서술어야. ‘키’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럼 ‘동생’의 상태는 어때? 맞아, ‘키가 부쩍 자랐다.’야. 즉, ‘키가 부쩍 자랐다.’라는 절 자체가 ‘동생은’이라는 주어의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므로 ‘키가 부쩍 자랐다’는 서술절에 해당해. 그리고 이 서술절에는 ‘자랐다’라는 용언이자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어 ‘부쩍’이 존재해. 그러므로 ㉓은 서술절 속에 부사어가 있다는 선지는 맞아. 다음으로 ㉓에는 ‘돌아오는 주말에 놀러가기’라는 명사절이 안겨 있어. 이는 본래 ‘(내가) 돌아오는 주말에 놀러간다.’라는 문장에서 주어가 생략되고 어미가 명사형 전성어미 ‘-기’로 바뀌면서 안겼어. 그리고 뒤에 부사격조사 ‘-로’를 가지면서 안은문장에서 부사어로 역할을 하게 되었지. 이러한 명사절 안에는 ‘주말에’라는 부사어가 있어. ‘주말’이라는 체언 뒤에 부사격조사 ‘에’가 붙어서 ‘주말에’라는 부사어가 형성되어 있지.

⑥를 살펴보자. ㉑에는 ‘잘 아는’, ㉒에는 ‘넓은’ ㉓에는 ‘농구를 아주 좋아하는’, ㉔에는 ‘돌아오는’이라는 관형절로 안긴문장이 있어. 그리고 이들은 모두 각각 ‘문제’, ‘운동장’, ‘동생’, ‘주말’이라는 안은문장의 체언을 수식하고 있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지.

[15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1. 중세와 현대의 명사형 전성 어미

(1) 중세

표지	예
① 명사형 어미 ‘-움/움’	부텨 授記 ^{후사} 미 글 쑤미 곤고
② 명사형 어미 ‘-기’, ‘-디’	겨집 出家 ^{후기} 를 즐기디 말라 내 겨지비라 가져가디 어려볼찌

(2) 현대

표지	예
① 명사형 어미 ‘-(으)ㅁ’	나는 승모가 모범생임을 안다. 우리 등반대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음이 확인되었다.
② 명사형 어미 ‘-기’	우리는 승모가 성공하기를 기대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가 너무 어렵다.

2. 중세의 격조사

(1) 주격 조사

형태	환경	예시
이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	사름 + 이
ㅣ	‘ㅣ’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부텨 + ㅣ
∅	‘ㅣ’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불휘 + ∅

(2) 관형격 조사

형태	환경	예시
ㅅ	높임 유정 명사, 무정 명사 뒤	부텨 + ㅅ, 나라 + ㅅ
익	평칭의 유정 명사 뒤	물 + 익
의	- ‘익/의’의 교체는 모음조화에 따라 결정된다.	崔九(최구) + 의

(3) 부사격 조사

형태	환경	예시
애/에/예	선행 체언의 모음이 양성 / 음성 / ㅣ	바를 + 애, 도솔천 + 예 서리 + 예 / 빅 + 예
익/의	특정 체언에만 연결(특이처격어) - ‘익/의’의 교체는 모음조화에 따라 결정된다.	밤 + 익, 곁 + 의
와/과	말음이 ‘ㄹ’, ‘모음’이면 ‘와’ 말음이 자음이면 ‘과’	달 + 와, 짜흠 + 과

3. ‘ㅎ’ 종성 체언

- ①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체언의 종성에 ‘ㅎ’을 가진 단어들 존재했다.
 예 ‘똥(똥), 갈(갈), 가늻(가늻), 겨늻(겨늻), 열(열), 하늻(하늻), 나랏(나라), 앓(앓), 술(술), 앓(안)’ 등
- ② 단독형이나 관형격 조사 ‘ㅅ’ 앞 → 예 나라 / 나랏
 - ‘ㅎ’ 종성 체언이 단독형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ㅅ’ 앞에 나타날 때 ‘ㅎ’ 없이 쓰인다.
- ③ 나라ㅎ + 이(주격 조사) → 예 나라히
 - ‘ㅎ’ 종성 체언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 나타날 때 종성 ‘ㅎ’이 연음되어 나타난다.
- ④ 나라ㅎ + 과(부사격 조사) → 예 나라과
 - ‘ㅎ’ 종성 체언이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축약되어 ‘ㅋ, ㅌ’으로 나타난다.

4. 중세의 성조

- 표시 : 방점으로 표시함

사성	방점	성격	예
평성	없음	낮고 짧은 소리	활(弓), 빅(梨)
거성	1점	높고 짧은 소리	갈(刀), 말(斗)
상성	2점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올라가는 긴 소리	:돌(石), :말썸미
입성	없음, 1점, 2점	급히 달는 소리 (종성이 ‘ㄱ, ㄷ, ㅂ, ㅅ’으로 끝나는 소리)	입(口), :남(穀)

5. 중세의 원순 모음화

- 개념 : 입술소리(ㄹ, ㅁ, ㅂ) 뒤에서 모음 ‘-’가 ‘-’로 변하는 현상
- 특징 : 중세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고, 18세기에 대부분 많이 일어남 예 물 → 물, 불 → 불, 므지게 → 무지게

[선택지 해설]

15. ㉞

[정답해설] 답은 ㉞야. 중세국어에서 성조란 각 음절의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러한 성조는 음절의 왼쪽에서 점의 개수로 표시돼. 예를 들어, 울림소리(ㄴ, ㄹ, ㄹ, 모음)로 끝난 음절의 왼쪽에 점이 하나도 없다면 ‘평성’, 점이 하나라면 ‘거성’, 두개라면 ‘상성’이야. 다만 음절이 울림소리가 아닌 안울림소리로 끝났다면 모두 입성으로 봐야 해. ‘알·픽·늑’과 ‘하·늑·히’는 ‘알’과 ‘하’는 모두 점이 없으니 평성, ‘픽’과 ‘늑’, ‘늑’과 ‘히’는 모두 왼쪽에 점이 하나이니 거성이야. 즉, ‘알·픽·늑’과 ‘하·늑·히’는 성조가 동일하게 실현되었어.

[오답풀이]

- ①을 살펴보자. 중세에는 명사 뒤에 ‘ㅎ’이 붙는 체언이 있었어. 이를 ‘ㅎ종성체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암ㅎ, 수ㅎ, 머리ㅎ’ 등이 있었어. 하지만, ‘불휘’는 분석하면 ‘불휘(명사) + ∅(주격조사)’야. 즉, ‘불휘’는 ‘ㅎ종성체언’이 아니야. 다만, ‘길혜’는 ‘길ㅎ(ㅎ종성체언) + 예(부사격조사)’로, ‘길ㅎ’이라는 ‘ㅎ’을 끝소리로 갖는 ‘ㅎ종성 체언’이 사용되었어.
- ②를 살펴보자. ‘식미’를 분석하면 ‘침(명사) + 이(주격조사)’이며, 이어적기를 해서 ‘식미’로 표기되었어. ‘알픽늑’은 ‘알(명사) + 익(부사격조사) + 늑(보조사)’로 현대국어 해석이 ‘앞에는’이기 때문에 ‘익’을 관형격조사가 아니라 장소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로 봐야해. 즉, ‘식미’와 ‘알픽늑’ 두 예시에는 관형격조사가 없어.
- ③을 살펴보자. ‘여름’은 현대어로 ‘열매’라는 명사야. 즉, ‘여름’을 분석하면 ‘열-(어근) + -음(명사 파생 접미사)’로 파생 접미사가 붙은 명사임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여름 하늑니’가 현대어로 ‘열매가 많으니’인 것으로 보아 명사 ‘여름’은 주어로 역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어드븐’은 분석하면 ‘어듭-(어근) + -(으)ㄴ(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현대국어로 ‘어두운’이야. 즉, ‘어드븐’은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한 형태야. 그리고 ‘길혜’에서 명사 ‘길ㅎ’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를 살펴보자. ‘므른’은 ‘물(명사) + 은(조사)’로, 오늘날 ‘물은’에 해당해. 즉 ‘물’이 ‘물’로 바뀐 거야. 이때, ‘ㄹ’은 입술소리로 입술이 동그렇게 만들어지면서 발음하는 ‘원순성’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는 평순 모음으로 원순성이 없어. 이렇게 원순성이 있는 자음과 없는 모음을 한꺼번에 발음하는 것은 편하지 않아. 그래서 현대로 오면서 ‘ㄹ’ 뒤의 평순모음 ‘-’가 원순모음 ‘-’로 바뀌었어. 이는 모음 ‘-’가 인접한 음운인 ‘ㄹ’의 영향으로 원순성을 가지게 된 거야. 하지만, ‘모새’는 달라. ‘모새’는 분석하면 ‘뭇(명사) + 예(조사)’이며, 현대국어에도 ‘뭇에’야. 즉, ‘뭇’은 중세와 현대에서 모두 모음 ‘-’를 가지고 있어. ‘-’가 중세에서 현대로 오면서 바뀌지 않았지.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② 문학

[참고] 모의고사로 문제를 풀어 본 김에 EBS 연계 작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EBS 연계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출제 될 때마다 공부해두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고전산문 [23~26번 지문] [이항복, ‘유연전’]

“얼굴 모습이 어찌나 변했는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으나, 앉아서 한참 동안 이야기하며 ... 말이나 행동도 정말로 유유인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EBS 수능완성 연계 #수능완성(202p)

[작품 ‘한 눈에 보기’]

[작품 줄거리]															
<p>주인공 유연은 현감 예원의 셋째 아들로, 형 유유와 함께 글 잘 짓고 예법이 밝기로 이름이 났다. 그런데 유유가 산사에서 독서를 하다가 자취를 감추자, 매부인 이지와 종매부 심용 등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유유의 아내 백 씨와 결탁하여 가짜 유유를 등장시킨다. 이후 가짜 유유가 도망가자 유연의 형수인 백 씨가 유연이 유유를 죽였다고 모함하고 유연은 옥사 과정에서 고문으로 죽게 된다. 유연의 아내는 죽은 남편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려고 노력한다. 이때에 진짜 유유가 나타나고 범인들의 죄상이 드러난다. 이러한 사실이 조정에게까지 알려져 유연의 억울한 죽음이 신원되고 죄인들은 벌을 받는다.</p>															
주제	재산을 두고 벌어진 억울한 죽음에 대한 신원 및 공정한 사법 행위 촉구														
[작품 구조]															
<p>▼ 사건 전개 가볍게 보기</p> <table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발단</td> <td>→</td> <td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전개</td> <td>→</td> <td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갈등</td> <td>→</td> <td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결말</td> </tr> <tr> <td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유유의 실종</td> <td></td> <td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가짜 유유의 등장</td> <td></td> <td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유연의 죽음</td> <td></td> <td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진짜 유유의 등장과 죄인 처벌</td> </tr> </table>		발단	→	전개	→	갈등	→	결말	유유의 실종		가짜 유유의 등장		유연의 죽음		진짜 유유의 등장과 죄인 처벌
발단	→	전개	→	갈등	→	결말									
유유의 실종		가짜 유유의 등장		유연의 죽음		진짜 유유의 등장과 죄인 처벌									
<p>▼ 송사 과정 가볍게 보기</p> <table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1차, ‘가짜 유유의 진위’</td> <td>→</td> <td style="width: 33%;">2차, ‘유연의 살인죄’</td> <td>→</td> <td style="width: 33%;">3차, ‘유연의 무고함’</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지(유연의 매부)와 백씨(유연의 아내)의 음모 • 가짜 유유였던 ‘채응규’의 정체가 탄로 </td> <t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에 송사에서 패배했지만 이어서 이지와 백씨는 다시 ‘살인죄’로 유연을 고소. • 고문으로 인한 유연의 사망 </td> <t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짜 유유의 등장으로 밝혀진 유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송사 • 유연의 무고함이 밝혀지고 죄인들과 관련 관리들이 처벌 받음. </td> </tr> </table>		1차, ‘가짜 유유의 진위’	→	2차, ‘유연의 살인죄’	→	3차, ‘유연의 무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지(유연의 매부)와 백씨(유연의 아내)의 음모 • 가짜 유유였던 ‘채응규’의 정체가 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에 송사에서 패배했지만 이어서 이지와 백씨는 다시 ‘살인죄’로 유연을 고소. • 고문으로 인한 유연의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짜 유유의 등장으로 밝혀진 유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송사 • 유연의 무고함이 밝혀지고 죄인들과 관련 관리들이 처벌 받음. 				
1차, ‘가짜 유유의 진위’	→	2차, ‘유연의 살인죄’	→	3차, ‘유연의 무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지(유연의 매부)와 백씨(유연의 아내)의 음모 • 가짜 유유였던 ‘채응규’의 정체가 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에 송사에서 패배했지만 이어서 이지와 백씨는 다시 ‘살인죄’로 유연을 고소. • 고문으로 인한 유연의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짜 유유의 등장으로 밝혀진 유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송사 • 유연의 무고함이 밝혀지고 죄인들과 관련 관리들이 처벌 받음.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내 주된 특징을 파악하라.”

‘한수 모의고사’ <보기>

조선 시대의 추국은 왕명으로 역모와 같은 정치적 중대 사건이나 존속 살인 등과 같이 인륜을 해치는 강상 죄 등의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추국을 받는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았으며, 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다. 죄인을 조사하는 추관은 죄인의 죄를 따져 묻는 심문을 통해 죄인의 자백을 받았다. 한편 **추관은 증거 없이도 죄와 연관된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죄인의 죄를 확신하거나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기도 하였다.** 「유연전」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친형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쓴 인물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과정을 다룬 송사 소설로, 이 작품을 통해 **조선 시대의 추국의 실상과 그 허실**을 엿볼 수 있다.

㉮ 조선 시대의 추국의 실상과 그 허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자들이 드물었기에 각 판결을 담당하는 사대부 관료들의 개인적 자질과 능력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송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진행은 하급 아전의 소관이었으므로 이들도 마음만 먹으면 송사 자체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조선의 옥사 처리 과정은 그리 객관적거나 체계적이지 못했다.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계가 분명히 ‘전편’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앞부분 줄거리] 유유가 가출한 뒤, 이지·심용의 사주를 받은 채응규가 나타나 자신이 유유라고 주장한다. 이를 믿지 못한 유연의 발고로 채응규는 관아에 잡혀 오게 되고, 대구 부사(태수)는 그를 박석의 집에 구금한다.

5일 뒤 채응규와 그의 처 춘수가 밤을 틈타서 달아났다. 박석이 알아차리고 뒤쫓아 춘수를 잡았지만 채응규는 이미 달아나 종적을 감추었다.

유유의 아내 백 씨는 실의에 빠져 상복을 입고 밤낮으로 곡하며 감사에게 호소했다.

“남편의 못된 아우 유연이 재산 욕심에 눈이 어두워 진짜를 가짜라 하며 형을 결박하여 관아에 가두고 재앙을 덮어씌우려 했습니다. 제 남편은 본래 광증을 앓고 있던 터에 구금을 당하자 병이 더욱 중해졌습니다. 다행히 태수께서 옥살이를 시키지 않으셔서 병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연이 감시하는 군졸을 매수하여 남편을 살해하고 흔적을 인멸했습니다. 유연의 죄를 따져 제 원통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대구 부사에게 명령하여 유연·춘수·박석을 잡아 가두게 했다. 유연의 아내 이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감사가 말했다.

“달아난 자는 유유가 아니라 채응규다. 또 달아났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나 또한 유연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백 씨가 호소하기를 그치지 않아 일을 처리하는 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일단 물러가 기다려라. 국문을 마치면 마땅히 바로잡을 것이다.”

백 씨가 유연을 이웃 마을로 옮겨 달라고 요청하자 마침내 현풍으로 옮겨 가두었다.

유연의 옥사에 대한 판결 내용을 조정에 미처 보고하기 전에 간관*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유유가 타지로 옮겨 다니며 고생을 겪어 외모는 비록 달라졌지만 말씨와 행동거지는 다름 아닌 유유이거늘, 그 아우가 적자의 자리를 빼앗아 재산을 독점하고자 음모를 꾸며 유유를 위협하고 결박하여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부사는 유유와 유연을 함께 옥에 가두어야 마땅했거늘 먼저 고소한 아우의 말을 믿고 형만 가두어 옥사의 체모를 잃었습니다. 또 유연의 옥사 처리를 지연시켜 형을 죽이고 인륜을 어지럽힌 죄를 지금까지 덮어 두고 있으니, 경상도 사람 중에 분통해하며 욕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유연을 잡아 와 죄를 다스리고 부사 박응천은 파직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관이 이어서 달성령 이지를 심문하니, 그가 대답했다.

“먼저 내가 처남 유유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집으로 찾아왔소. 얼굴 모습이 어찌나 변했던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으나, 앉아서 한참 동안 이야기하며 집안일을 물으니 메아리처럼 곧바로 대답하는 것이 부절*을 합한 듯 정확했고, 말이나 행동도 정말로 유유인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었소. 유연이 도착해서는 서로 붙잡고 통곡을 하다가 병 때문에 임시 거처를 옮겼는데, 마침 벽에 있는 자신들의 부친이 쓴 글을 보고는 또한 마주 보며 울었소.”

심용도 대답했다.

“이지가 그의 아들 경역을 보내 ‘유유가 집에 왔다.’고 하여서, 제가 곧바로 가서 보니 얼굴 모습이 어찌나 변했던지 비록 확실히 알 수는 없었으나, 그 집안일을 갖춰 말하는 것이 하나도 어긋난 게 없었습니다. 또한 이지 등이 유유라고 하여 저 또한 믿었습니다.”

김백천도 이미 똑같이 말하기로 한 뒤인지라, 이지와 심용의 말과 다른 점이 없었다. 이어 춘수가 대답했다.

“저는 지아비 유유를 좇아 일찍이 태복천 가에 살고 있었는데, 이지 어른과 그분의 아들 경역 나리가 와서 보고는 ‘틀림없는 유다.’라고 하셨고, 심용과 김백천 두 나리도 ‘진짜 유다.’라고 하셨습니다. 유연 나리가 도착해서는 지아비 유유와 아들 정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저만 홀로 집에 머물렀는데, 잠시 후에 지아비 유유가 갇혔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옥으로 가서 만났습니다. 옥에서 풀려나 박석의 집에서 병을 치료할 때, 제가 마침 한밤중에 뒷간에 갔다가 방에 들어가 보니 불은 꺼져 있고, 지아비 유유가 있지 않은 까닭에 유연 나리가 지아비 유유를 죽였다고 의심했습니다.”

추관이 심리한 조서에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이지, 심용과 김백천이 모두 ‘진짜 유유다.’라고 하니 이는 유유가 분명한데, 유연만 홀로 진짜 유유가 아니라 하여 길에서 결박 지우고 관아에 고발했으니 살해하고 그 흔적조차 없앤 것이 명백합니다. 청컨대 곤장을 치고자 합니다.”

곤장 42대를 치자 드디어 유연이 없는 죄를 있다고 자인했다. 이에 국문을 끝내고 형을 확정하려는데 유연이 부르짖었다.

“제가 이미 형을 죽였다는 누명을 얻었으니 진실로 죽어 마땅하나, 외람되이 염려함은 국가가 형벌을 알맞게 잘 사용하는 것에 끝내 누를 끼칠까 하는 것입니다. 달성령이 국가를 속이고 저에게 죄를 뒤집어씌움에 이르렀으니 바라옵건대 저를 일 년 동안만 가두어 놓고 채응규와 형의 종적을 찾은 후에 죄를 명백히 가린다면 원통함이 없겠습니다. 만약 제가 죽은 후에 진짜 유유가 나타난다면 죽은 목숨은 다시 살아날 수 없거늘, 그때야 국가가 이를 뉘우치고 고치릅니까?”

또 유연이 울부짖었다.

“추관과 저는 본디 사사로운 원한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 이항복, 「유연전」 -

* 간관: 임금의 잘못이나 백관(百官)의 비행을 규탄하던 벼슬아치.

* 부절: 신분의 증거로 삼았던 신표.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재가 분명히 '전'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EBS 연계 POINT	
해제	이 작품은 실제로 있었던 유연의 옥사 사건을 임금이 전해 듣고 작가에게 명을 내려 기록한 것으로, 『백사집』 권16 「잡저」에 실려 있다. 음모에 따른 복잡한 사건 전개와 치밀한 구성으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가족 내의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송사 과정에서의 부정부패한 권력의 문제 또한 비판하고 있다.
EBS 핵심 문제	
<보기>	「유연전」은 유연의 옥사 사건을 근거로 이항복이 쓴 전(傳) 작품이다.
	<p>[tip] 일반적 전(傳)</p> <p>원래 전(傳)의 일반적 대상은 유교의 도덕적 규범에 맞는 충신 효자, 열녀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유연전은 극적인 사실담을 바탕으로 한 송사 모티프를 담으면서 일반적인 패턴의 '전'문학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전의 '전'에서는 주인공의 혈통이나 가계 따위가 주목이 됐던 반면 주인공인 유연은 그저 일개 서생이며 모범이 될 만한 충신이나 효자도 아니다. 이야기를 통한 유교적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이전의 '전'에서는 탄생과 성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면 유연전은 송사 기간이 초점으로 하여 서사를 진행하고 있다.</p>
	유연의 형 유유의 가출 후, 유연의 매부인 달성령 이지와 유유의 아내 백 씨가 가짜 유유를 등장시켜 유연에게 돌아갈 재산을 가로채고자 음모를 꾸미는 것에서 사건이 시작된다. 가짜 유유의 진위를 묻는 송사(1차 송사)에서 채응규가 가짜임이 드러나지만, 이후 백 씨가 유연을 살인죄로 고발하면서 벌어진 국문(2차 송사) 과정에서 권력과 결탁한 이지 등이 승리하게 된다. 2차 송사 중 고문으로 유연이 죽은 후, 진짜 유유가 등장하면서 유연의 억울함을 풀고자 노심초사하던 유연의 아내 이 씨가 법부에 호소한다. 이에 송사(3차 송사)가 다시 벌어져 유연의 죄 없음이 밝혀지고 죄인들과 유연을 국문한 관리들이 벌을 받게 된다. 이항복은 이 작품을 통해 당시의 송사 진행에서의 문제점과 관리들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있다.
발문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서사 전개를 '송사'를 중심으로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차 송사 진행 중, 채응규가 도망을 감으로써 2차 송사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군. ② 백 씨가 유연을 살인죄로 고발하면서 2차 송사가 벌어지게 되는군. ③ 2차 송사 과정에서 유연이 죽은 사건은 당시 송사 진행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군. ④ 진짜 유유가 등장하면서 진행된 3차 송사를 통해 유연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겠군. ⑤ 2차 송사는 친인척의 재산 다툼이, 3차 송사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군.
정답 해설	⑤ <보기>에 따르면 2차 송사는 유연의 살인죄에 대한 고발인데, 이는 이지, 백 씨 등이 유연에게 돌아갈 재산을 가로채고자 하는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친인척의 재산 다툼을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유유의 등장으로 유연의 억울함을 풀게 되는 3차 송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2차 송사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한 유연의 죽음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에 대한 탐욕이 3차 송사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현대산문 [43~45번 지문] [김유정, '만무방']

“이러해야 어디 이득을 믿어 보겠는가— 확실히 증거만 있어 이놈을 잡으면 대신에 요절을 내리라 결심하고 응칠이는 침을 탁 뱉어 던지고 산을 내려간다.”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p317) #사용설명서(p315)

[작품 '한 눈'에 보기] “이러할 조금 돕는 정으로 개방계-”

[전체 줄거리]

성실하게 농사를 했지만 부랑자로 몰락하며 마을을 떠난 응칠은 그리운 마음에 아우인 응오를 찾아온다. 그런데 성실한 농군인 응오는 논이 벼를 베지 않고 있다가 벼를 도둑맞는다. 응칠은 도난 사건과 관련하여 전과자인 자신이 의심받을 것을 우려하여 직접 도둑을 잡기로 한다. 응칠은 의심이 가는 주변 사람을 조사하고 응오의 눈에 잠복도 하다가 벼를 다시 훔치러 온 도둑을 잡는다. 하지만 그 도둑이 응오라는 사실에 응칠은 놀라며 자신의 것을 자신이 훔칠 수밖에 없는 응오의 처지를 비통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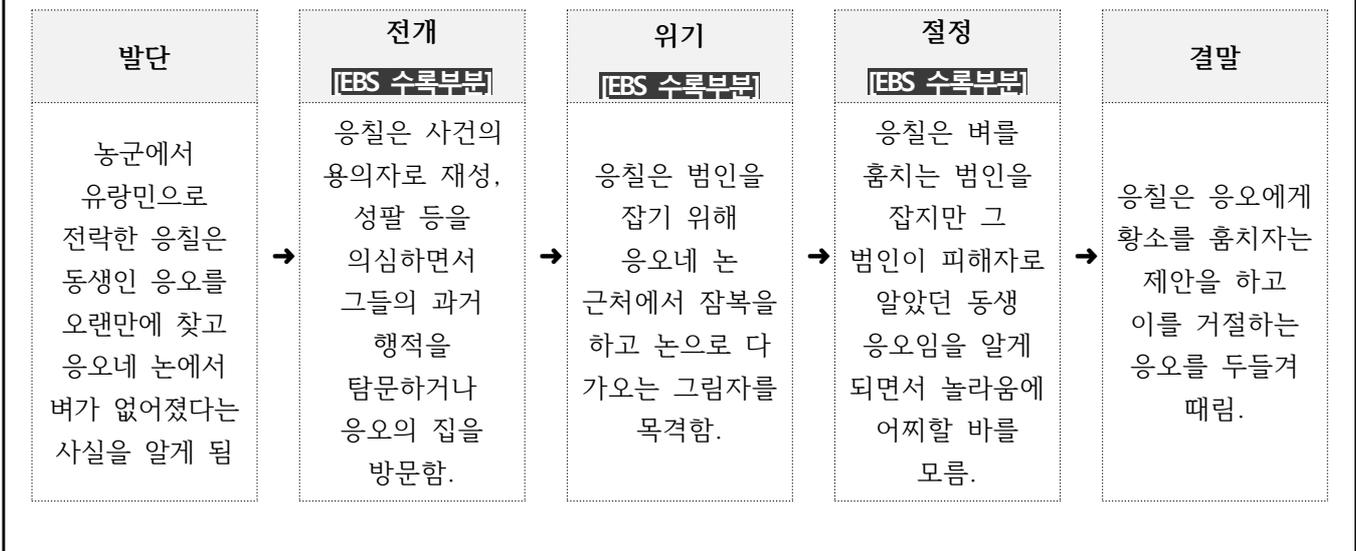
[tip] 만무방(염치도 없이 막된 사람)

- ① 만무방이 된 인물, '응칠' : 응칠은 빚에 못 이겨 정상적인 생활을 접고 아내, 아들과도 헤어져 도박 및 절도 등 온갖 사회의 질서를 어겨가며 생활을 한다.
- ② 응칠이 응오에게 만무방을 권유 : 혈족이 그리워 응오가 있는 마을에 온 응칠은 응오의 아내를 곧 죽을 예정이라는 사실과 그렇다고 살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자신을 따라 만무방이 되라고 제안한다. 응오는 여기서 만무방이 되라는 응칠의 권유를 거절한다.
- ③ 만무방이 되어가는 인물, '응오' : 눈에 새벽까지 잠복하여 결국 응오 논이 벼 도둑을 잡지만 그 벼 도둑은 다른 아닌 '응오'였고 이를 통해 만무방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전형적인 만무방인 것처럼 보이는 응칠이도 한때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성실한 농군이었던. 물론 응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들이 만무방이 된 건 그들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이 담당하기 어려운 제도의 구조적 문제라 볼 수 있다.

주제 일제 강점기 식민지 경제 체제의 수탈과 농촌의 피해함

[작품 구조]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내 주된 특징을 파악하자.”

‘한수 모의고사’ <보기>	
	「만무방」의 응칠은 응오의 벼가 도둑맞은 것을 확인하자 기민한 반응을 보인다. 응칠은 도둑을 잡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의심하며 이들을 은밀하게 탐문한다. 한편 응칠은 이 사건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도박과 절도를 일삼은 자신의 전력으로 인해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계가 분명히 ‘전반’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EBS 연계 POINT	
해제	이 작품은 소작 농민인 응오가 수확은 하지 않고 자신의 벼를 훔치는 침담한 상황을 반어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응오가 자신의 논에서 스스로 벼를 훔치는 이유는 힘든 경작 끝에 수확을 해도 도지와 부채, 세금으로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설정은 식민지의 농촌 경제 체제가 지닌 가혹함을 구체적으로 부각하는 데 이바지하며 독자가 이 소설의 제목인 ‘만무방’, 즉 ‘염치없이 막돼먹은 존재’가 누구인지를 깊게 고민하게 한다.

[포인트1] 표현상의 특징

-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응칠, 응오, 성팔’ 등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면서 벼가 없어진 사건에 관해 이야기 하고 있음.
- 서술자는 여러 인물 중 특히, 벼가 없어진 사건의 범인을 밝히고자 하는 ‘응칠’의 시각을 비중 있게 취하면서 사건의 여러 정보를 독자에게 제한적으로 전달함.
- 사건을 발생한 순서에 따라 서술하지 않고 다른 순서에 따라 서술함으로써 사건의 전말에 대한 독자의 관심과 추론을 유도함.

[포인트2] 결말의 반전

‘반전’의 의미	‘반전’은 사건의 전개가 역전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함. 소설을 비롯한 서사 장르에서 즐겨 사용하는 반전은 독자에게 놀라움을 선사하면서 작품이 제기하는 문제를 독자가 새롭게 인식하도록 함.
이 작품의 반전	이 작품의 반전은 벼를 훔친 범인의 정체에 있음. 독자는 이 작품을 읽으며 ‘누가 범인인가’를 궁금해하며 그 답을 예상함. 하지만 이 작품의 결말에서 범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응오’임이 밝혀지고 독자는 놀라움과 함께 자신의 벼를 자신이 훔치는 당대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게 됨.

EBS 사용설명서, 「더 알아보기」

• 이 작품의 반어적 표현

이 작품에서는 농군이던 응칠이 늘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야반도주한 일을 두고 ‘팔자를 고쳤다’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이 표현은 흔히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아진 경우에 사용한다. 작가는 실제 사용되는 뜻과 반대로 이 말을 사용하여 응칠의 비참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

독이 세 개, 호미가 둘, 낫이 하나로부터 밥사발, 젓가락, 짚이 석 단까지 그 다음에는 제가 빚을 얻어 온 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쪽 적어 놓았다. 금액은 제각기 그 아래다 달아 놓고, 그 옆으론 조금 사이를 떼어 역시 조선문으로 나의 소유는 이것밖에 없노라, 나는 54원을 갚을 길이 없으매 죄진 몸이라 도망하니 그대 들은 아예 싸울 게 아니겠고 서로 의논하여 억울치 않도록 분배하여 가기 바라노라하는 의미의 성명서를 벽

에 남기자 안으로 문들을 걸어 닫고 울타리 밑구멍으로 세 식구가 빠져 나왔다.
이것이 응칠이가 팔자를 고치던 첫날이었다.

[참고하기] EBS 'Q & A'

Q. 이 작품의 제목인 '만무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A. 이 작품의 제목인 '만무방'은 '염치가 없이 막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작품에서 현재의 만무방은 '응칠'로, 그는 야반도주 이후 도박, 절도 등 사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날마다 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만무방은 '응오'로, 그는 성실한 농군으로 살고자 하지만 생존의 위험에 시달린다는 점에서 그 또한 형처럼 만무방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의 제목은 식민지 농촌에서 살아가는 어떤 농민도 만무방의 삶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EBS 핵심 문제

<보기>

김유정 소설이 재미있는 이유 중 하나는 추리 소설의 기법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탐정, 범인, 희생자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추리 소설은 대체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탐정이 조사하며 목격자의 도움을 받아 범인을 추적하는 흐름으로 구성된다. 독자는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며 탐정이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주목할 점은 탐정이 너무 이른 시기에 범인을 밝히면 소설의 재미는 반감된다는 점이다. 탐정은 잘못된 증거를 수집하거나 용의자를 범인으로 오해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에 따라 사건의 해결은 지연된다. 추리 소설은 대체로 탐정이 범인을 밝히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때 밝혀진 범인이 의외의 인물일수록 독자의 놀라움은 커진다.

발문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선지

- ① ㉠은 탐정이 해결하고자 하는 범죄 사건으로 볼 수 있다.
- ② ㉡은 사건을 조사하고 범인을 밝히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탐정으로 볼 수 있다.
- ③ ㉢은 탐정이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하는 용의자로 볼 수 있다.
- ④ ㉣은 탐정이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추리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말로 볼 수 있다.
- ⑤ ㉤은 범인이 누구인지 독자에게 밝혀지는 순간으로 의외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독자에게 놀라움을 선사한다.

정답 해설

④ <보기>의 내용을 적용하면, 이 작품은 응칠이 탐정과 같은 역할을 맡아 의심이 되는 인물을 용의자처럼 조사하면서 벼 도난 사건의 범인을 추적하는 소설로 볼 수 있다. 응칠은 범인으로 의심되는 성팔과 대화하면서 그의 말을 반복하지만, 이는 공감하는 말이 아니라 비꼬는 말이다. 응칠은 성팔이 범인이라는 자신의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한글 불 지문 "비교하기, <같은 작품 다른 뉘앙스>, 평가원 - '2007학년도 수능 김유정, 「만취방」"

주재소는 그를 노려보았다. 특하면 오라, 가라, 하는데 학질이였다. 어느 동리고 가 있다가 불행히 일만 나면 누구보다도 그부터 붙들려 간다. 왜냐면 그는 전과 사범이였다. 처음에는 도박으로, 다음엔 절도로, 또 고 담에는 절도로, 절도로.

그러나 이번 멀리 아우를 방문함은 생활이 궁하여 근대러 왔다거나 혹은 일을 해 보러 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혈족이라곤 단 하나의 동생이요, 또한 오래 못 본지라 때 없이 그리웠다. 그래 모처럼 찾아온 것이 뜻밖에 덜컥 일을 만났다.

지금까지 논의 벼가 서 있다면 그것은 성한 사람의 짓이라 안 할 것이다.

응오는 응오개 논의 벼를 여태 베지 않았다. 물론 응오가 베어야 할 것이나, 누가 듣든지 그 형 응칠이를 먼저 의심하리라. 그럼 여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응칠이가 혼자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응오는 진실한 농군이였다. 나이 서른하나로 무던히 철났다 하고 동리에서 ㉠ 쳐주는 모범 청년이였다. 그런데 벼를 베지 않는다. 남은 다들 거둬들였고 털기까지 하련만 그는 ㉡ 벨 생각조차 않는 것이다.

지주라든 혹은 그에게 장리*를 놓은 김 참판이든 뻥뻥 찾아와 벼를 베라 독촉하였다.

“얼른 털어서 낼 건 내야지.”

하면 그 대답은,

“계집이 죽게 됐는데 벼는 다 뭐지유—”

하고 한결같이 내뱉는 소리뿐이였다.

하기는 응오의 아내가 지금 기지사경이때 틈은 없었다 하더라도 돈이 놀아서 약을 못 쓰는 이 판이니 진시 벼라도 털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안 털었던가.

그것은 작년 응오와 같이 지주 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는 않으리라. 한 해 동안 애를 ㉢ 즐이며 혼자식 모양으로 알뜰히 가꾸던 그 벼를 거둬들임은 기쁨에 틀림없었다. 꼭두새벽부터 옛, 옛, 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색초*를 제하고 보니 남은 것은 ㉣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이 있을 따름. 그것은 슬프다 하기보다 끝없이 부끄러웠다. 같이 털어 주던 동무들이 뻥히 보고 섰는데 빈 지게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건 진정 열적기 짝이 없는 노릇이였다. 참다 참다 못해 응오는 눈에 눈물이 흘렀던 것이다.

[A] 가뜩한테 앞치고 덮치더라고 올해는 고나마 흥작이였다. 샷바람과 비에 벼는 깨깨 비틀렸다. 이놈을 가
 을하다간 먹을 게 남지 않음은 물론이요 빛도 다 못 ㉤ 가릴 모양. 에라, 빌어먹을 거 너들끼리 캐다 먹든
 말든 멋대로 하여라, 하고 내던져 두지 않을 수 없다. 벼를 거뭇다고 말만 나면 빛쟁이들은 우— 물려들
 거니깐.

응칠이의 죄목은 여기에서도 또렷이 드러난다. 국으로 가만만 있었다면 좋은 걸 이 사품에 뛰어들어 지주의 뺨을 제법 갈긴 것이 응칠이였다.

처음에야 그럴 작정이 아니였다. 그는 여러 곳 물을 마신 이만치 어지간히 속이 튼 건달이였다. 지주를 만나 까놓고 씩 좋은 소리로 의논하였다. 올 농사는 반실이니 도지도 좀 감해 주는 게 어떠냐고. 그러나 지주는 암말 없이 고개를 ㉥ 모로 흔들었다. 정 이러면 하여튼 일 년 품은 빼야 할 테니 나는 그 논에다 불을 지르겠수, 하여도 잠자코 응치 않는다. 지주로 보면 자기로도 그 벼는 넉넉히 거둬들일 수는 있다마는, 한번 버릇을 잘못 해 놓으면 여느 작인까지 행실을 버릴까 염려하여 겉으로 독촉만 하고 있는 터이였다. 실상이야 고까짓 벼쯤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그 심보를 눈치 채고 응칠이는 화를 벌컥 낸 것만은 좋으나 저도 모르게 대뜸 주먹뺨이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 중에 있는 벼인데 ㉦ 귀신의 놀음 같은 변괴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벼가 없어졌다. 그것도 병들어 쓰러진 쪽정이는 제쳐 놓고 무얼로 그랬는지 알장 이삭만 따 갔다. 그 면적으로 어렵하면 아마 못 돼도 한

댕 말 가량은 될는지!

응칠이가 아침 일찍이 그 논개로 노닐자 이걸 발견하고 기가 막혔다. 누굴 성가시게 굴려고 그러는지. 산속에 파묻힌 논이라 아직은 본 사람이 없는 모양 같다. 하나 동리에 이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저는 어느 모로든 혐의를 받아 폐는 종이 입어야 될 것이다.

(중략)

한 식경쯤 지났을까,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논둑에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야 기어 나온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뭔지 형겅이 가리었다. 붓짐을 등에 짊어 메고는 허리를 구뵈이 뺑소니를 ◎ 놓는다.

그러자 응칠이가 날쌔게 달려들며,

“이 자식, 남의 벼를 훔쳐 가니!”

하고 대포처럼 고함을 지르니 논둑으로 고대로 데굴데굴 굴러서 떨어진다. 얼굴에 호되게 놀란 모양이다.

응칠이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띠를 내려조겼다. 어이쿠쿠, 쿠— 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띄어서 그 고개를 들고 팔부터 벗겨 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가 없었음인지 시선을 치건으며 그 자리에 우두망찰한다.

그것은 ◎ 무서운 침묵이었다. 살똥맞은 바람만 공중에서 복새를 논다.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유?”

[B]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핵 돌린다. 그리고 느끼며 울음이 복받친다. 붓짐도 내버린 채,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하고 데통스러이 내뱉고는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없어진다.

형은 너무 ◎ 꿈속 같아서 멍하니 섰을 뿐이다.

- 김유정, 「만무방」 -

*장리: 돈이나 곡식을 꾸어 주고, 받을 때는 한 해 이자로 본디 곡식의 절반 이상을 받는 변리.

*도지: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는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

*색초: 잡초를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문제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문제 선지	①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따라가며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②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③ 장황한 해설을 통해 작가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④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⑤ 회상을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정답 해설	① 이 소설에서 응칠이는 단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그리워 응오를 찾아왔다. 응오는 성실한 농민이지만 벼를 베지 않고 있다. 아내가 거의 죽게 된 데다 수확해 봤자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열심히 수확했다가 빈 지게로 돌아오며 울었던 작년의 경험이 있는 데다가 올해는 그나마 흉작이기 때문이다. 응칠이는 응오를 도와주려고 지주를 만났다가 지주의 태도에 화가 나서 지주의 뺨을 갈기는 실수를 해서 상황을 악화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응오의 눈에 도둑이 드는 변고가 발생한다. 응칠이는 자신이 전과자여서 의심을 받을 것으로 짐작하고 자기가 범인을 잡아서 혐의를 벗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응칠이가 잠복까지 해가며 그 범인을 잡고 보니 동생 응오였다. 이처럼 이 작품은 응칠과 응오 두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따라가며 '서사(=인물의 움직임이 의미 있게 연결되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p>오답 풀이</p>	<p>② 이 작품은 응칠과 응오의 경험 위주로 전개되므로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삽화(이야기 가운데 본 줄거리와 관계없는 끼워 넣은 이야기) 형식도 아니다. ③ 인물의 심리나 상황에 대한 묘사 중심으로 전개되므로 '장황한 해설'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작품에서 작가 의식은 상황적 아이러니를 통해 표출되는 것이지 '장황한 해설'을 통해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④ 인물의 외양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회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수확해도 얻을 것이 없는 서글픈 현실과 관련되므로 서정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p>
<p>문제 2</p>	<p>[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p>
<p><보기></p>	<p>ㄱ. [A]는 [B]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상황적 배경이 된다. ㄴ. [A]에 드러나 있는 갈등은 [B]에서 극적으로 해소된다. ㄷ. [A]와 [B]가 묶여 당시의 궁핍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ㄹ. [A]에서는 불만의 대상이 개인이었다가 [B]에서는 사회로 확대된다.</p>
<p>문제 선지</p>	<p>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p>
<p>정답 해설</p>	<p>② [A]는 '올해는 흉작이라 수확을 해도 빛도 다 못 갚을 상황이라서 벼를 수확하지 않고 내 던져 둔' 응오의 처지를 드러낸 장면이고, [B]는 자기 벼를 스스로 훔치다가 응칠에게 들킨 응오가 '왜 형까지 못 살게 구느냐며 울고 나서 '내 것 내가 먹는데 무가 뭐라'며 사라지는 장면이다. 따라서 [A]는 [B]의 사건(응오가 자기 벼를 스스로 훔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상황적 배경이 되며, 이러한 상황적 아이러니는 당시의 궁핍한 현실을 역설적(자기 벼를 자기가 훔치는 것은 역설적 상황이다)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p>
<p>오답 풀이</p>	<p>ㄴ의 경우 [B]에서 갈등이 해소된다고 볼 수 없으며, ㄹ의 경우 불만의 대상은 [A], [B] 모두 표면적으로는 '개인'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회'이다.</p>
<p>문제 3</p>	<p>'응칠'의 행동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보기>를 토대로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보기></p>	<p>ㄱ. 응칠이는 먼 곳에서 동생을 찾아온다. ㄴ. 응칠이는 담판을 지으려고 지주를 만난다. ㄷ. 응칠이는 지주의 뺨을 때린다. ㄹ. 응칠이는 논에 가서 도적을 기다린다. ㅁ. 응칠이는 도적을 잡기 위해 다짜고짜로 달려든다.</p>
<p>문제 선지</p>	<p>① ㄱ, ㄴ을 통해 동생을 생각하는 응칠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② ㄱ, ㄹ에서 응칠이가 동생을 찾아온 일이 도적과 관계됨을 알 수 있어. ③ ㄴ, ㄷ, ㅁ을 통해 호락호락하지 않은 응칠이의 성격을 알 수 있어. ④ ㄴ, ㄹ을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응칠이의 의지를 볼 수 있어. ⑤ ㄹ, ㅁ은 응칠이가 자신에게 미칠지 모를 혐의를 벗기 위해 한 행위일 수 있어.</p>
<p>정답 해설</p>	<p>② 응칠이가 먼 곳에서 동생을 찾아온 것은 못 본지 오래된 동생이 그리웠기 때문이다. 와서 보니 응오의 논에 도둑이 드는 사건이 일어났고, 응칠이는 자기가 범인으로 의심을 받을 것이 두려워 자기가 도둑을 잡아서 혐의를 벗으려고 도둑을 기다리는 것이다.</p>

문제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선지	① ㉠: '진실한 농군'의 행위인 점에 비추어, 의도가 단순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 노동의 결과가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쓸쓸함과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③ ㉢: 새로운 문제의 발생으로 사건이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 예상된다. ④ ㉣: 싸움 중에 잠시 찾아온 침묵으로,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이 표현되어 있다. ⑤ ㉣: 뜻밖의 상황을 당해 당혹스러워 하는 인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정답 해설	④ ㉣은 응칠이가 도둑을 잡고 보니 자기 동생인 응오였기에 당황해 하는 대목인데, 응오의 입장에서 자기 것을 자기 스스로 훔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상황에 울분과 비애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이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문제 5	19. ㉠~㉣을 바꿔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선지	① ㉠: 알아주는 ② ㉡: 태우며 ③ ㉢: 값울 ④ ㉣: 거칠게 ⑤ ㉣: 친다
정답 해설	④ ㉣의 '모로'는 거절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서 '옆쪽으로, 대각선으로'라는 뜻을 지닌 부사이다.
오답 풀이	① 쳐주다 : 인정하여 주다 ② 즐이다 : 속을 태우다시피 조바심하다. ③ 가리다 : 빛·외상값 따위를 셈하여 값다. ⑤ '뺑소니를 놓는다'는 것은 문맥상 '뺑소니를 친다'는 의미이다.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③ 독서

[참고] 아래 분석은 강사 본인이 직접 시험을 치르고 실제 읽었던 느낌을 기억하여 그대로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의 내용은 실전에서 이 정도 읽어주면 된다는 ‘선’을 여러분들의 ‘선’과 맞춰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와중에 이 정보가 왜 중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딱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읽었어야 하는 최소한의 ‘선’과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렇다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과학[38~42번 지문][천체의 운동에 관한 다양한 이론]

설명을 읽기 전에 먼저 한 번 정독할 것을 추천합니다.

16세기 초반에 제기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은 전통 천문학의 우주론인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도 전통 천문학의 요소도 적잖이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코페르니쿠스는 별들과 행성들의 등속 원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천구 개념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행성들이 저마다의 고유한 천구에 붙박여 있고 각 천구들의 회전에 의해 각 행성들이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행성들의 운동에 대한 관측 결과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등속 원운동에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코페르니쿠스는 전통 천문학처럼 여러 개의 원을 조합하여 각각의 행성의 등속 운동을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다는 태양 중심설은 행성의 역행 운동 같은 지구 중심설의 난제들을 보다 간단하게 설명하는 장점을 보이면서도, 지구 중심설에 버금갈 정도로 복잡하고 많은 원들을 포함하게 되었다.

16세기 후반에 브라헤는 달과 태양과 별들은 우주의 중심인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금성이나 화성 같은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절충론적인 우주 모형을 제안하면서 천구 개념을 폐기했다. 그는 스스로 제작한 관측기구를 이용하여 맨눈으로 별들과 행성들의 위치를 관측하고 이를 꼼꼼하게 기록하였는데, 특히 혜성에 대한 반복적인 관측을 통해 그전까지 지상계에서 일어나는 기상 현상으로 간주된 혜성이 달보다 먼 거리에서 움직이는 천체임을 밝힌 것으로 유명했다. 이는 달 아래의 세계인 지상계와 달, 행성, 별들로 이루어진 천상계를 구분한 전통 천문학의 이분법적 우주론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하였다. 천구들을 가로지르며 천상계를 휘젓고 다니는 혜성의 존재는 천상계의 천체들이 영원불변의 법칙에 따라 등속 원운동을 한다는 전통 천문학의 기본 전제에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우주에서 천구를 제거한 것은 행성의 운동을 천구의 회전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설명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케플러는 우주의 수학적 조화에 대한 믿음과 태양 숭배 사상을 포함하고 있던 신플라톤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러한 신념에 따라 그는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행성 운동의 원인으로 태양을 지목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제각기 하나의 폐곡선*의 궤도를 그리며 공전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한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 여러 개의 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러한 추정에 따라 전통 천문학의 다양한 기본 전제들을 바로잡고 브라헤가 남긴 방대한 화성 관측 자료들을 재해석하여 지구와 화성의 공전 궤도를 확정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태양을 기준으로 측정한 화성의 공전 주기가 687일이라는 점, 날짜별로 태양과 지구와 화성이 이루는 각도들이 브라헤의 관측 자료에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화성이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가지는 타원* 궤도로 공전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한편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지름을 장축이라고 하는데, 화성은 공전 궤도의 장축상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인 근일점에서 가장 빠르게, 태양과 가장 먼 지점인 원일점에서 가장 느리게 움직였다. 케플러는 태양이 화성의 공전 운동에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에 따라 이 부등속 운동을 해석하였다. 즉, 가까운 곳에서는 태양의 힘이 더 강하게 미치고 먼 곳에서는 태양의 힘이 더 약하게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브라헤의 관측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그는 행성과 태양을 잇는 선분이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면적을 쓸고 지나간다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발견했다. 이로써 케플러의 새로운

천문학 이론은 행성들이 등속 원운동을 한다는 전통 천문학의 기본 전제를 무너뜨리면서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 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고, 훗날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 폐곡선: 곡선 위의 한 점이 한 방향으로 움직여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곡선.
- * 타원: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실전 읽기]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16세기 초반에 제기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C)은 전통 천문학의 우주론인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C)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도 전통 천문학의 요소도 적잖이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코페르니쿠스는 별들과 행성들의 등속 원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천구 개념(C)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행성들이 저마다의 고유한 천구에 붙박여 있고 각 천구들의 회전에 의해 각 행성들이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행성들의 운동에 대한 관측 결과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등속 원운동에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코페르니쿠스는 전통 천문학처럼 여러 개의 원을 조합하여 각각의 행성의 등속 운동을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다는 태양 중심설은 행성의 역행 운동 같은 지구 중심설의 난제들을 보다 간단하게 설명하는 장점을 보이면서도, 지구 중심설에 버금갈 정도로 복잡하고 많은 원들을 포함하게 되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첫 문단부터 중요한 개념들이 꽤 나옵니다.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 개념들도 꽤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줍니다.
- ② 첫 번째 문장에서 두 개의 상반된 이론이 나오니, 편 나눠서 정리해봅시다.
코페르니쿠스 ⇨ 태양 중심설 /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 지구 중심설(전통 천문학)
- ③ 다음 부분에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도 '전통 천문학의 요소'도 적잖이 포함하고 있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전통 천문학'과 '태양 중심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소'가 무엇인지는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 ④ 코페르니쿠스가 버리지 않았던 전통 천문학의 요소는 '천구 개념'입니다. 그런데 '천구'가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천구 개념과 함께 '등속 원운동'이라는 개념을 제시해줍니다. 그러니까 '천구' 그 자체로 중요하다기보다는, '등속 원운동'의 배경으로서 천구 개념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 ⑤ 정리하자면 코페르니쿠스는 천구 개념과 함께 행성들의 등속 원운동을 모두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구 개념과 등속 원운동을 인정하려고 했더니, 관측 결과와 맞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코페르니쿠스는 여러 개의 원을 조합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 사이의 공통점이 꽤 나왔네요. 정리해봅시다.

	태양 중심설	지구 중심설(전통 천문학)
차이점	우주의 중심 : 태양	우주의 중심 : 지구
공통점	천구 개념 ⇨ 행성들의 등속 원운동 여러 개의 원 조합	

- ⑥ 마지막 문장의 내용은 중요하게 읽혔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양 중심설'은 '지구 중심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난제들)을 해결(설명)한 부분도 있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복잡하고 많은 원들 포함)도 있었다.

16세기 후반에 브라헤는 달과 태양과 별들은 우주의 중심인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금성이나 화성 같은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절충론적인 우주 모형을 제안하면서 천구 개념을 폐기했다. 그는 스스로 제작한 관측기구를 이용하여 맨눈으로 별들과 행성들의 위치를 관측하고 이를 꼼꼼하게 기록하였는데, 특히 혜성에 대한 반복적인 관측을 통해 그전까지 지상계에서 일어나는 기상 현상으로 간주된 혜성이 달보다 먼 거리에서 움직이는 천체임을 밝힌 것으로 유명했다. 이는 달 아래의 세계인 지상계와 달, 행성, 별들로 이루어

진 천상계를 구분한 전통 천문학의 이분법적 우주론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하였다. 천구들을 가로지르며 천상계를 휘젓고 다니는 혜성의 존재는 천상계의 천체들이 영원불변의 법칙에 따라 등속 원운동을 한다는 전통 천문학의 기본 전제에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우주에서 천구를 제거한 것은 행성의 운동을 천구의 회전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설명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브라헤’의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쯤되면 19학년도 수능 지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지문 구조도 자체도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브라헤’의 이론은 ‘절충안’으로서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의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절충안은 대부분 일부를 취하고 일부를 버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 ② 다음 문장을 보면 브라헤는 ‘천구 개념’을 버렸다고 합니다. 기억나나요? ‘천구 개념’은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 천구 개념과 연결된 개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등속 원운동’ 개념이었지요. 이 등속 원운동이 가능하려면 천구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브라헤는 천구 개념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브라헤가 등속 원운동의 개념도 함께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③ 브라헤는 또한 그전까지 ‘기상 현상’으로 간주되었던 ‘혜성’이 달보다 멀리 있는 천체라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런데 ‘혜성’이 천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전통 천문학의 이분법적 우주론이 유지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 ④ 왜 그럴까요? 이때는 혜성의 ‘위치’가 문제가 됩니다. 브라헤의 관측대로 혜성이 달보다 멀리 있다면, 이분법적 우주론에서 혜성은 천상계의 천체가 됩니다. 이분법적 우주론에서는 천체들이 천구에 붙박혀서 등속 원운동을 해야 합니다. 반면 혜성은 지문 표현에 따르면 천구들을 가로지르며 천상계를 휘젓고 다닙니다. 이러한 혜성의 존재를 밝혀냄으로써 천상계의 존재도 부정하게 되고 동시에 천구의 존재도 부정하게 된 것이지요.
- ⑤ 그전까지는 행성들의 운동을 천구 개념을 통해 설명했었는데, 이 천구 개념을 부정했으니 이제 행성의 운동을 천구가 아닌 무엇을 통해 설명해야 하는지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추후에 돌아와서 봐도 되니까, 기억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만 간단하게 정리해줍니다.

	태양 중심설	지구 중심설	절충론적 우주 모형
차이점	우주의 중심 : 태양	우주의 중심 : 지구	태양, 달 : 지구 공전 / 행성 : 태양 공전 천구 개념 폐기
공통점	천구 개념 ⇨ 행성들의 등속 원운동 여러 개의 원 조합		-

케플러는 우주의 수학적 조화에 대한 믿음과 태양 숭배 사상을 포함하고 있던 **신플라톤주의(C)**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러한 신념에 따라 그는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행성 운동의 원인으로 태양을 지목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제각기 하나의 폐곡선*의 궤도를 그리며 공전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한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 여러 개의 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러한 추정에 따라 전통 천문학의 다양한 기본 전제들을 바로잡고 브라헤가 남긴 방대한 화성 관측 자료들을 재해석하여 지구와 화성의 공전 궤도를 확정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태양을 기준으로 측정한 화성의 공전 주기가 687일이라는 점, 날짜별로 태양과 지구와 화성이 이루는 각도들이 브라헤의 관측 자료에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화성이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가지는 타원* 궤도로 공전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옵니다. ‘케플러’의 이론입니다. 케플러는 신플라톤주의에 따라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였습니다. 코페르니쿠스팀으로 넣으면 되겠네요.
- ② 케플러는 각각의 행성이 태양 주위를 폐곡선의 궤도를 그리며 공전한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케플러의 생각에 따르면 여러 개의 원을 사용하지 않고도 천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가진 한계였으니, 케플러의 이론은 코페르니쿠스 이론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③ 또한 케플러는 브라헤의 관측 자료들도 활용해서 지구와 화성의 공전 궤도를 확정하였습니다. 케플러의 이론에 따르면 화성의 공전 주기는 687일이 되는데, 이 공전 궤도가 타원이라고 합니다.

	태양 중심설	지구 중심설	브라헤	케플러
차이점	우주의 중심 : 태양	우주의 중심 : 지구	우주의 중심 : 태양+지구 천구 개념 폐기	우주의 중심 : 태양 여러 개의 원 필요 X
공통점	천구 개념 ⇨ 행성들의 등속 원운동 여러 개의 원 조합		-	

한편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지름을 **장축(C)**이라고 하는데, 화성은 공전 궤도의 장축상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인 **근일점(C)**에서 가장 빠르게, 태양과 가장 먼 지점인 **원일점(C)**에서 가장 느리게 움직였다. 케플러는 태양이 화성의 공전 운동에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에 따라 이 부등속 운동을 해석하였다.** 즉, 가까운 곳에서는 태양의 힘이 더 강하게 미치고 먼 곳에서는 태양의 힘이 더 약하게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브라헤의 관측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그는 **행성과 태양을 잇는 선분이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면적을 쓸고 지나간다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C)을 발견했다.** 이로써 케플러의 새로운 천문학 이론은 행성들이 등속 원운동을 한다는 전통 천문학의 기본 전제를 무너뜨리면서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 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고, 훗날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기출 분석을 꾸준히 해온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슈퍼문 지문이 떠올랐을 겁니다.
- ② 타원 궤도에는 '장축'이 있는데, 이 장축상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이 근일점, 가장 먼 지점이 원일점이 됩니다.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도는 와중에 태양과 화성과의 거리가 달라지는데, 거리 변화에 따라 속도도 달라집니다. 거리가 가까워지면 속도가 빨라지고, 거리가 멀어지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는 거리에 따라 태양의 힘이 미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정도면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③ 케플러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주장하였는데, 행성과 태양을 잇는 선분이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면적을 쓸고 지나간다는 법칙입니다. 말하자면, 원일점에서 행성과 태양을 잇는 선분의 길이는 길어지겠지만, 동일 시간 동안 행성이 이동하는 거리는 줄어들겠지요 공전 속도가 느려지니까요. 반면 근일점에서 행성과 태양을 잇는 선분의 길이는 줄어들겠지만, 동일 시간 동안 행성이 이동하는 거리는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면적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인데, 이해를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동일 시간=동일 면적' 정도만 정리해줄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6세기 초반에 제기된 ㉠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은 전통 천문학의 우주론인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도 전통 천문학의 요소도 적잖이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코페르니쿠스는 별들과 행성들의 등속 원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천구 개념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행성들이 저마다의 고유한 천구에 붙박여 있고 각 천구들의 회전에 의해 각 행성들이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행성들의 운동에 대한 관측 결과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등속 원운동에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코페르니쿠스는 전통 천문학처럼 여러 개의 원을 조합하여 각각의 행성의 등속 운동을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다는 태양 중심설은 행성의 역행 운동 같은 지구 중심설의 난제들을 보다 간단하게 설명하는 장점을 보이면서도) 지구 중심설에 버금갈 정도로 복잡하고 많은 원들을 포함하게 되었다.

16세기 후반에 브라헤는 (달과 태양과 별들은 우주의 중심인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금성이나 화성 같은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절충론적인 우주 모형을 제안하면서 천구 개념을 폐기했다. (그는 스스로 제작한 관측기구를 이용하여 맨눈으로 별들과 행성들의 위치를 관측하고 이를 꼼꼼하게 기록하였는데) 특히 혜성에 대한 반복적인 관측을 통해 그전까지 지상계에서 일어나는 기상 현상으로 간주된 혜성이 달보다 먼 거리에서 움직이는 천체임을 밝힌 것으로 유명했다. 이는 (달 아래의 세계인 지상계와 (달, 행성, 별들로 이루어진 천상계를 구분한 전통 천문학의 이분법적 우주론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하였다. 천구들을 가로지르며 천상계를 휘젓고 다니는 혜성의 존재는 천상계의 천체들이 영원불변의 법칙에 따라 등속 원운동을 한다는 전통 천문학의 기본 전제에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우주에서 천구를 제거한 것은 행성의 운동을 천구의 회전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설명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케플러는 우주의 수학적 조화에 대한 믿음과 태양 숭배 사상을 포함하고 있던 신플라톤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러한 신념에 따라 그는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행성 운동의 원인으로 태양을 지목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제각기 하나의 궤곡선의 궤도를 그리며 공전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한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 여러 개의 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러한 추정에 따라 전통 천문학의 다양한 기본 전제들을 바로잡고 (브라헤가 남긴 방대한 화성 관측 자료들을 재해석하여 지구와 화성의 공전 궤도를 확정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태양을 기준으로 측정한 화성의 공전 주기가 687일이라는 점, 날짜별로 태양과 지구와 화성이 이루는 각도들이 브라헤의 관측 자료에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화성이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가지는 타원* 궤도로 공전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한편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지름을 장축이라고 하는데, 화성은 (공전 궤도의 장축상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인 근일점에서 가장 빠르게, 태양과 가장 먼 지점인 원일점에서 가장 느리게 움직였다. 케플러는 태양이 화성의 공전 운동에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에 따라 이 부등속 운동을 해석하였다. 즉, 가까운 곳에서는 태양의 힘이 더 강하게 미치고 먼 곳에서는 태양의 힘이 더 약하게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브라헤의 관측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그는 행성과 태양을 \odot 잇는 선분이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면적)을 쓸고 지나간다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발견했다. (이로써 ㉡ 케플러의 새로운 천문학 이론은 행성들이 등속 원운동을 한다는 전통 천문학의 기본 전제를 무너뜨리면서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 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고, 훗날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 궤곡선: 곡선 위의 한 점이 한 방향으로 움직여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곡선.
- * 타원: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3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 ① 케플러의 천문학 연구는 태양 숭배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
- ② 전통 천문학에서 말하는 지상계에는 지구와 달이 포함된다. X → 달은 '천상계'이다.
- ③ 코페르니쿠스는 이론과 관측 결과가 어긋나자 관측 결과의 정확성을 의심했다. X → 이론을 수정하였다.
- ④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 체계는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에 의해 완성되었다. X → 올바른 인과관계가 아니다.
- ⑤ 케플러는 전통 천문학의 기본 가정들을 재해석하여 브라헤의 관측 자료를 수정했다. X → 바로잡고 재해석했다.

39. 윗글에 나타난 '브라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 ① 맨눈으로 천체 현상을 관측하여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
- ②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전통 천문학의 입장을 수용했다. ○
- ③ 혜성의 등속 원운동을 관측하여 전통 천문학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렸다. X → 혜성의 등속 원운동이 아니라 혜성이 천구를 가로지르며 운동한다는 것에 대한 관측이다.
- ④ 케플러가 화성의 공전 궤도가 타원임을 밝히는 데 활용된 풍부한 관측 자료를 남겼다. ○
- ⑤ 행성들의 운동이 천구의 회전에 의해 발생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

①, ②, ④, ⑤: 지문 확인

40.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 ① ㉠은 천구의 회전에 의해 그 천구에 붙박인 행성이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 → ㉠의 핵심.
- ② ㉠은 천구 개념을 유지했기 때문에 행성의 역행 운동을 전통 천문학보다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X → 더 단순하게 설명하였다. → 지문 확인
- ③ ㉡은 여러 개의 원을 조합하지 않고도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나 화성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다. ○ → '궤곡선의 궤도' 활용.
- ④ ㉡은 화성이 태양 주위를 부등속으로 공전하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인과적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 → 태양의 힘이 미치는 정도가 거리에 따라 달라져서
- ⑤ ㉠과 ㉡은 모두 태양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우주 모형을 채택한 것이다. ○

㉠, ㉡ 모두 태양이 강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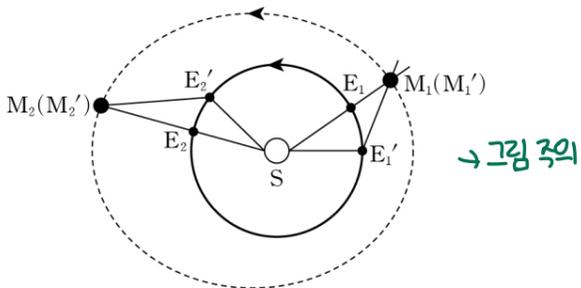
41.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⑤

<보 기>

케플러는 지구의 공전 궤도를 먼저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화성의 공전 궤도를 확정했다. 즉 특정 날짜에 지구가 공전 궤도상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래의 방법을 통해 화성의 공전 궤도를 확정했다.

- (1) 브라헤의 관측 자료를 통해 태양(S), 지구(E₁), 화성(M₁)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날짜를 확인하고, 그림에서 세 천체를 잇는 직선을 긋는다. 단, 이때는 화성(M₁)이 직선 SE₁의 연장선상에 존재한다는 것만 추정한다.
- (2) (1)에서 확인한 날짜로부터 687일 후인 날짜에 지구가 위치한 지점 E₁'을 찾아 그림에 표시한다.
- (3) 브라헤의 관측 자료에서 지구가 E₁'에 위치한 날짜에 지구와 태양을 잇는 직선과 지구와 화성을 잇는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찾고, E₁'에서 화성(M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향으로 해당 각도에 맞게 직선을 그린다.
- (4) (1)의 직선과 (3)의 직선이 만나는 지점을 화성의 공전 궤도상의 한 지점으로 특정한다. 즉, M₁과 M₁'의 위치를 교차점으로 확정한다.
- (5) 태양, 지구, 화성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또 다른 날짜를 찾아, M₂(M₂')와 같은 화성의 공전 궤도상의 또 다른 지점들을 구하여 연결한다.

(단, 그림의 공전 궤도상에 표시된 화살표는 행성의 이동 방향을 가리킨다.)



- ① 케플러는 화성이 687일마다 우주 공간의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겠군. ○ → 화성의 공전 주기가 687일이라고 했으므로
- ② 케플러는 (1)의 단계에서는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알았더라도 지구와 화성의 거리는 몰랐겠군. ○
- ③ 케플러는 지구가 E₂에 있던 날짜로부터 687일 후에는 E₂' 지점이 지구의 위치가 되었다고 생각했겠군. ○
- ④ 지구가 E₂'에 있을 때 지구와 태양을 잇는 직선과 지구와 화성을 잇는 직선이 이루는 각도는 브라헤의 관측 자료에 기록되어 있었겠군. ○ → (3)에서도 해당 각도는 관측 자료를 통해 알았을 것이므로 E₁'의 지점대로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 ⑤ 태양의 위치가 완성된 타원 궤도의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면, 화성은 M₁(M₁') 지점에서보다 M₂(M₂') 지점에서 더 빠르게 움직이겠군. X → 태양이 오른쪽에 위치한다면 (경선보다) 그림상 M₁에 더 가까울 것이므로 따라서 이후에 으하면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화성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므로 M₁ 지점에서 더 빨리 움직일 것이다.

- ②: 전제를 통해 태양&지구의 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정확한 설명 없이 '연장선상에 존재한다는 것만 특정'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 지구와 화성의 거리는 몰랐을 것.
- ③: (2)나(4)를 통해 E₁, E₁'도 찾았으므로 E₂, E₂'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E₂'가 687일 후의 지구의 위치이다.

42. 문맥상 ㉠~㉣와 바뀌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 ① ㉠: 발생(發生)하는 ○
- ② ㉡: 횡단(橫斷)하며 ○
- ③ ㉢: 고취(鼓吹)되어 X
- ④ ㉣: 도출(導出)했다 ○
- ⑤ ㉤: 연결(連結)하는 ○

'사조잡하다': 생각이나 마음이 온통 한곳으로 쏠리게 되다
 ↓ X 문맥 맞지 않음.
 '고취되다': 의견이나 사상 따위가 열렬히 주장되어 불어넣어지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응오는 흉년으로 인해 추수를 하면 빗쟁이에게 빼앗길 것을 알고 응고개의 벼를 방치한다. 응오의 형인 응철은 지주를 찾아가간다.

응철이의 죄목은 여기에서도 또렷이 드러난다. 국으로 가만만 있었으면 좋은 걸 이 사품*에 뛰어들어 지주의 뺨을 제법 갈긴 것이 응철이었다.

처음에야 그럴 작정이 아니었다. 그는 여러 곳 물을 마신 만치 어지간히 속이 트인 건달이었다. 지주를 만나 까놓고 썩 좋은 소리로 의논하였다. 울 농사는 반실이니 도지도 좀 감해 주는 게 어때냐고. 그러나 지주는 암말 없이

[A] 고개를 모로 흔들었다. 정 이리하면 하여튼 일 년 품은 빼야 할 테니 나는 그놈에다 불을 지르겠수, 하여도 잠자코 응치 않는다. 지주로 보면 자기로도 그 벼는 넉넉히 거둬들일 수는 있다. 마는 한번 벼를 잘못해 놓으면 어느 작인까지 행실을 버릴까 염려하여 걸으로 독촉만 하고 있는 터였다. 실상이야 고까짓 벼쯤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그 심보를 눈치채고 응철이는 화를 벌컥 낸 것만은 좋으나, 저도 모르게 대뜸 주먹뺨이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 중에 있는 벼인데 귀신의 놀음 같은 변괴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벼가 없어졌다. 그것도 병들어 쓰러진 쪽정이는 전혀 놓고 무얼로 그랬는지 말짱 이삭만 따 갔다. 그 면적으로 어렵하면 아마 못 돼도 한 뼛 말가량은 될는지—

응철이가 아침 일찍이 그 논개로 노닐자 이걸 발견하고 기가 막혔다. 누굴 성가시게 하려고 그러는지. 산속에 파묻힌 논이라 아직은 본 사람이 없는 모양 같다. 하나 동리에 이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저는 어느 모로 보든 혐의를 받아 폐는 좋아 입어야 될 것이다.

응철이는 송이도 송이려니와 실상은 궁리에 바빴다. 속중으로* 지목 갈 만한 놈을 여럿 들어 보았으나 이렇다 짚을 만한 증거가 없다. 어쩌면 재성이나 성팔이 이 둘 중의 짓이리라, 하고 결국 이렇게 생각 든 것도 응철이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중략 줄거리] 우연히 만난 성팔은 응오의 벼가 도둑맞은 것을 아느냐고 응철에게 묻고, 응철은 왜 응고개일 갔냐고 되묻는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성취한다.”

저 자 이승모, 최상훈
펴 낸 곳 한국교육평가인증
전 화 02-3401-8900
홈페이지 www.kydi.co.kr